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 벨라루스

# 1. 일반

## 1. 국가개요

### 가. 국가개황

국명	벨라루스(Republic of Belarus)
면적	207,600 km <sup>2</sup> (자료원 : 벨라루스 통계청, 2021년 기준)
수도	민스크(Minsk)
민족(인종)	벨라루스인(84.9%), 러시아인(7.5%), 폴란드인(3.1%), 우크라이나인(1.7%), 기타 소수민족(2.8%)
언어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러시아어가 일상 언어로 널리 쓰임
종교	러시아정교(83.4%), 가톨릭(8.2%), 개신교(3.1%), 기타(5.3%)
기후	온대 대륙성 기후로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우기로 일조량이 적으며, 기압이 낮음 1월 평균기온 5도(겨울 최저 -23도), 7월 평균기온 16.5도
국가원수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1994년 7월부터 집권 중) (2020년 8월 9일 6선, 2025년까지 임기)

## 2. 한국과의 관계

###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 국교 수립일

1992-02-10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투자보장협정	1997-08-09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서명일: 1997-04-22
이중과세방지협정	2003-06-17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서명일: 2002-05-20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2004-10-07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일: 2004-05-17
무역협정	2004-11-08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	서명일: 2004-05-17
문화협력협정	2008-03-13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일: 2007-11-05
항공협정	2008-11-13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서명일: 2007-11-05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2008-07-24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서명일: 2007-11-05

#### 한국교민 수

65 명 (자료원 : 주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 / 2021년 12월)

##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 정치

벨라루스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 대한민국과는 1992년 2월 10일, 북한과는 1992년 2월 3일 수교를 맺었다. 1992년 8월 최고소비에트 의장 슈스케비치가, 1997년 4월에는 대통령 루카셴코가 방한했으며, 2002년 6월 이종남 감사원장 등이 벨라루스를 방문했다. 양국은 투자보장협정, 외무부 간 협력의정서를 체결했다. 주한벨라루스대사관은 1997년 12월에 개설되었으며, 2007년 12월에는 주벨라루스 대한민국대사관이 개설됐다.

2018년 1월 20일부터 1월 23일 4일간 국회 내 한-벨라루스·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 의원친선협회 소속 국회의원 6인(이원욱, 정춘숙, 이명수, 박대출, 곽대훈, 정중섭)이 벨라루스를 방문한 바 있다. 방문 기간 중 의원들은 벨라루스 하원 의장 및 부의장, 벨-한 의원친선협회장, 상원 외교위원장, 통신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양국 의회 간-정부 간 고위급 인사 교류, IT·디지털 경제, 투자, 농업 등 분야 협력 방안과 저출산율 등 인구학적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향후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합의했다.

(자료원 : 주 벨라루스 대한민국대사관)

### 경제

현재 양국 간 경제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EAEU FTA 체결이다. EAEU는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 2015년 1월 1일 출범했는데,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5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2017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이 민스크를 방문해서 한-유라시아경제연합 제3차 정부 간 협의회,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동 회 의에서 양측은 '한-유라시아경제연합 FTA 협상 개시'에 대해 벨라루스가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체결하기도 했다. 양측은 '한-유라시아경제연합 FTA 협상 개시'에 대해 벨라루스가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Joint Statement)을 체결했다.

2019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단이 민스크를 방문해서 제6차 과학기술포럼을 개최했다. 동 포럼에서 양측은 재료과학, 나노기술, 생명공학,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 등 분야에서 기술 및 인력교류 등의 협력을 협의하였다.

한편 현재 WTO 미가입국인 벨라루스는 1993년 9월 WTO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가입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면서 가입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와 벨라루스 양국 간 양자 협상은 2007년 10월 1차 협상을 개시하였고, 2017년 1월 6차 양자협상을 끝으로 양자 협상은 완료되어 합의서에 서명한 상태이다.

또한 벨라루스 투자민영화청(NAIP)와 KOTRA 벨라루스 민스크무역관은 투자/프로젝트 정보교류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2021년 12월 10일 체결한 바 있다.

(자료원 : 주 벨라루스 대한민국대사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민스크무역관)

### 문화

대한민국과 벨라루스 간 문화/체육 교류 협력 연혁은 아래와 같다.

- 'K-POP World Festival 2014' 개최(2014년)
- 'K-POP Festival 2015 in Belarus' 개최(2015년)
- KF 한국 전통미술 전시회 '한국인의 일생' 개최(2015년)
- 한국 영화의 날, 한국 영화 상영(2016년)
- 수교 25주년 기념 한국 가을 문화 축제 개최(2017년)
- 한국문화축제 개최(2019년)

- 한국-벨라루스 친선문화축제 개최(2019년)
- 고멜, 그로드노 한국영화제 개최(2019년)
- 제27회 민스크 국제도서전 한국관 개최(2020년)
- 한국-벨라루스 대표시인 번역시집 교차출간행사 개최(2020년)
- 온라인 한식특강 5회 개최(2020~2021년)
- 벨라루스 시민기자단 운영(2018~2021년)
- 'K-POP World Festival 2021' 벨라루스 예선전 개최

(자료원 : 주 벨라루스 대한민국대사관)

### 3. 경제현황

####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	2.54	3.14	1.45	-0.9	
명목GDP (십억\$)	54.72	60.01	64.41	60.2	
1인당 GDP (PPP, \$)	18,267.24	19,319.24	19,984.36	20,187.33	
1인당 명목 GDP (\$)	5,757.29	6,322.32	6,798.35	6,398.87	
정부부채 (% of GDP)	53.16	47.52	41	48.05	
물가상승률 (%)	6	4.9	5.6	5.5	
실업률 (%)	5.7	4.8	4.2	4.1	
수출액 (백만\$)	29,240	33,907	32,955	29,041	
수입액 (백만\$)	34,235	38,441	39,477	32,619	
무역수지 (백만\$)	-4,995	-4,534	-6,522	-3,578	-
외환 보유고 (백만\$)	7,315.3	7,157.6	9,393.5	7,468.5	
이자율 (%)	11	10	9	7.75	
환율 (자국통화)	1.93	2.04	2.09	2.43	

〈자료원 : IMF, 벨라루스 통계청, 벨라루스 중앙은행〉

#### 경제 동향

벨라루스 경제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벨라루스의 전체 대외 수출 가운데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으로, 러시아 경기 변동에 벨라루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 벨라루스는 구소련권 국가 가운데 이례적으로 천연자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다. 따라서 러시아로부터 저렴하게 제공되는 석유/가스를 활용하여 자국 내 산업(석유화학산업, 차량제조업 등)이 운영되고 있어, 러시아 경제 상황에 따라 벨라루스 경제도 호황을 맞거나 불황을 겪는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벨라루스의 가장 큰 거래국 러시아의 화폐 가치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유가 폭락 및 달러 강세 속에서 연일 추락해, 벨라루스 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으며, 2015년 -3.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에 이어 2016년에도 -2.6%를 기록해 경기침체가 이어졌으나,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이며 2017년 2.5%, 2018년 3.0%, 2019년 1.2%의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2020년 초까지만 해도 국제기구 등도 벨라루스의 플러스 성장을 예상했으나,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과 2020년 8월 대선 이후 불복시위 및 벨라루스 루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등으로 2020년은 -0.9%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벨라루스 통계청에 의하면 2021년 1~11월 GDP는 전년동기대비 2.3% 성장하였다.

벨라루스는 전통적으로 동맹국인 러시아로부터 특혜를 받아 원유 및 가스를 싸게 구입해 가공수출하는 석유화학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유가가 올라야 벨라루스의 석유화학제품이 대외 가격경쟁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으나, 국제유가는 2018~2019년에는 60달러대에 머물다가 2020년에는 하락세를 보였다가 회복되어 2021년 12월 기준 배럴당 72달러 선을 기록 중이다.

2019년 이후 러시아 석유 부문 세제개편(Tax Maneuver)으로 인해 벨-러 양국은 갈등 중이며, 러시아의 보상이 없을 경우 2025년까지 벨라루스는 88~106억 달러의 손실이 전망된다. 러시아는 그간 벨라루스에 유리한 특혜조건으로 원유를 공급함으로써 러시아가 피해를 본다고 판단하여 2018년 7월 세제개편을 통해 벨라루스에 대한 특혜범위를 축소하였으며, 2020년 이후 벨라루스로의 원유공급을 잠정 중단한 상태로 향후 벨라루스의 석유화학제품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 루블의 가치가 불안정한 가운데, 러시아에 교역의 절반을 의존하는 벨라루스 루블의 안정적인 운용이 우려(양국 간 거래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 루블로 결제)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벨라루스 루블 환율은 대폭 평가절하된 바 있다. (2020년 초 1달러당 2.1루블대에서 2021년 12월 기준 1달러당 2.5루블대를 기록 중)

유동성 문제도 불안 요소인데, 벨라루스는 외환보유고(2021년 12월 기준 84.7억 달러, 2021년 1월 기준 금 43.2톤) 대비 외채(2021년 10월 기준 423억 달러)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로, 새로운 외채 발행 없이 단기채권을 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 등 정부 재정적 불안정성에 따른 부담이 항상 있다.

## 경제 전망

<b>경제전망</b>	<p>2020년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고, 실물경제 전반에서도 활기를 보이면서 EBRD, World Bank, IMF 등 국제기구도 1~2%대의 플러스 성장을 예상하였으나, 2020년 초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얼어붙었으며, 2019년 이후 벨라루스-러시아간 에너지 공급 갈등 문제, 2020년 8월 대선 이후 불복시위 및 벨라루스 루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등으로 2020년은 -0.9%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 사태가 누그러진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다소 완만한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소비도 완만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벨라루스 통계청에 의하면 2021년 1~11월 GDP는 전년동기대비 2.3% 성장하였다.</p> <p>다소 긍정적인 요인은 2021년 내 벨라루스의 WTO 가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벨라루스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15년 1월 출범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의 경제연합체) 중 유일하게 WTO 미가입 국가이다. 벨라루스 WTO 가입을 위한 제11차, 12차 실무그룹 회의가 각각 2019년 2월 및 7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실무그룹 회의에서 알렉산드르 투르친(Alexander Turchin) 제1부총리가 이끈 벨 측 사절단은 벨라루스가 2020년 가입 협상을 마무리하여 가입을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및 2020년 8월 대선 이후 벨라루스와 서방과의 갈등으로 인해 일정추진이 미뤄진 상태이며 벨라루스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가입을 추진중에 있다.</p>
-------------	---

## II. 무역

### 1. 수출입

####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러시아	12,889,785,258
2	우크라이나	3,464,519,917
3	영국	2,384,049,090
4	독일	1,124,022,469
5	네덜란드	1,112,603,880
6	폴란드	1,102,354,795
7	Areas, nes	865,750,900
8	리투아니아	855,768,287
9	카자흐스탄	592,311,583
10	브라질	440,903,943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러시아	12,934,259,767
2	우크라이나	4,172,329,053
3	영국	3,074,982,799
4	독일	1,467,844,277
5	네덜란드	1,434,047,381
6	폴란드	1,371,155,631
7	Areas, nes	1,275,198,100
8	리투아니아	1,161,329,419
9	카자흐스탄	784,880,957



10	브라질	586,443,770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러시아	13,678,571,914
2	우크라이나	4,224,445,462
3	영국	2,295,531,949
4	Areas, nes	1,621,734,900
5	독일	1,320,639,568
6	폴란드	1,311,607,431
7	리투아니아	1,060,779,856
8	네덜란드	804,754,287
9	카자흐스탄	742,891,538
10	중화인민공화국	663,865,252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우크라이나	2,427,410,220
2	폴란드	984,907,804
3	중화인민공화국	889,064,100
4	리투아니아	604,634,908
5	독일	601,764,106
6	브라질	584,907,108
7	미국	328,852,087
8	네덜란드	263,585,411
9	라트비아	226,368,728
10	인도	220,775,822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러시아	19,496,891,288
2	중화인민공화국	2,719,440,088
3	독일	1,747,257,086
4	폴란드	1,363,613,397
5	우크라이나	1,232,636,788
6	터키	809,775,669
7	이탈리아	698,109,312
8	Areas, nes	526,691,700
9	리투아니아	487,408,999
10	미국	378,123,435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러시아	22,588,490,666
2	중화인민공화국	3,037,117,068
3	독일	1,844,548,704
4	우크라이나	1,421,370,418
5	폴란드	1,280,073,176
6	터키	807,768,417
7	이탈리아	806,320,695
8	Areas, nes	735,711,800
9	리투아니아	523,911,554
10	미국	453,553,796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러시아	21,718,770,865
2	중화인민공화국	3,680,748,269
3	독일	1,802,293,100

4	우크라이나	1,719,412,223
5	Areas, nes	1,490,057,000
6	폴란드	1,456,131,264
7	이탈리아	797,518,718
8	터키	764,552,025
9	리투아니아	578,337,693
10	미국	484,176,545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2,091,640,077
2	폴란드	1,667,325,999
3	독일	1,550,237,157
4	영국	1,198,539,338
5	우크라이나	899,734,792
6	리투아니아	635,815,131
7	터키	595,072,436
8	이탈리아	392,126,329
9	체코	311,362,153
10	네덜란드	275,353,670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3,833,996,380
2	310420	염화칼륨	2,260,552,200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546,559,044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179,589,300

5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666,236,199
6	040690	그 밖의 치즈	653,722,600
7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606,609,600
8	271500	역청질(瀝靑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瀝靑), 석유역청(瀝靑), 광물성 타르,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과 컷백)]	411,799,600
9	040510	버터	395,946,415
10	870193	엔진의 동력이 37킬로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367,728,600

<자료원 : UN Comtrade>

###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4,575,912,670
2	310420	염화칼륨	2,719,868,086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2,108,368,181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519,826,000
5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1,167,209,807
6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809,895,200
7	040690	그 밖의 치즈	658,491,479
8	870193	엔진의 동력이 37킬로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361,048,647
9	040510	버터	353,440,900
10	440711	소나무[피누스(Pinus)종]의 것	339,838,630

<자료원 : UN Comtrade>

###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4,094,391,496
2	310420	염화칼륨	2,766,510,700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854,243,500
4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213,779,532
5	040690	그 밖의 치즈	796,626,485
6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726,767,000

7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640,915,300
8	870193	엔진의 동력이 37킬로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398,149,800
9	040510	버터	377,205,987
10	7214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압연 후 꼬임 가공된 것	354,297,248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10420	염화칼륨	1,889,301,233
2	271019	기타	1,095,352,505
3	440711	소나무[피누스(Pinus)종]의 것	370,892,414
4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357,986,054
5	310520	질소·인·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309,582,988
6	271320	석유역청(瀝靑)	165,323,543
7	7214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압연 후 꼬임 가공된 것	164,894,756
8	151411	조유(粗油)	131,267,011
9	270799	기타	114,605,130
10	310280	요소·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13,165,992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5,338,081,900
2	271121	천연가스	2,779,233,300
3	271019	기타	940,689,408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774,041,300
5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369,289,226
6	720449	기타	326,881,000

7	300490	기타	323,774,000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92,613,753
9	080810	사과	267,588,400
10	840820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231,136,200

<자료원 : UN Comtrade>

##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6,824,815,166
2	271121	천연가스	2,690,760,800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170,191,800
4	271019	기타	790,841,681
5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514,780,940
6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396,561,000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92,756,063
8	720449	기타	391,791,362
9	300490	기타	311,195,500
10	840820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285,036,560

<자료원 : UN Comtrade>

##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6,580,854,200
2	271121	천연가스	2,637,547,300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847,292,500
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585,506,007
5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10,772,198
6	300490	기타	383,456,664
7	720449	기타	308,004,091
8	848180	그 밖의 기기	259,318,000
9	840820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245,918,526

10	840130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요소(카트리지)	237,646,500
----	--------	-----------------------------	-------------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111,440,275
2	300490	기타	323,164,519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59,461,608
4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51,486,106
5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46,726,696
6	120190	기타	143,809,869
7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06,046,060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00,288,622
9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98,808,060
10	860799	기타	97,696,007

<자료원 : UN Comtrade>

## 2. 한국과의 수출입

###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7	29	45	-16
2018	33	45	-12
2019	48	56	-8
2020	55	41	14
2021	66	81	-1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3203	타이어	14	0	13
2	7411	승용차	5	0	4
3	7420	자동차부품	7	0	7
4	6134	아연도강판	2	0	1
5	2140	합성수지	1	0	1
6	2262	의약품	3	0	2
7	2273	화장품	3	0	2
8	7331	의료용기기	2	0	1
9	7251	건설중장비	2	0	1
10	8124	TV카메라및수상기	0	0	0

####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11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3203	타이어	11	0	11
2	7411	승용차	10	0	10
3	7420	자동차부품	10	0	10
4	6134	아연도강판	5	0	5
5	2140	합성수지	3	0	3
6	2262	의약품	3	0	3
7	2273	화장품	3	0	3
8	7331	의료용기기	2	0	2
9	7251	건설중장비	2	0	2
10	8124	TV카메라및수상기	1	0	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330	칼룸비료	0	29	-30
2	8311	집적회로반도체	0	4	-4
3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1	1	0
4	2900	기타화학공업제품	0	1	-1
5	4399	기타의식물	0	2	-3
6	4490	기타섬유제품	0	0	0
7	4412	직물제의류	0	1	-1
8	4391	마직물	0	0	-1
9	7151	광학기기	0	0	-1
10	7152	광학기기부품	0	0	-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11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330	칼룸비료	0	65	-65
2	8311	집적회로반도체	0	5	-5

3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1	3	-2
4	2900	기타화학공업제품	0	1	-1
5	4399	기타의작물	0	1	-1
6	4490	기타섬유제품	1	1	0
7	4412	작물제의류	0	0	0
8	4391	마직물	0	0	0
9	7151	광학기기	0	0	0
10	7152	광학기기부품	0	0	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3. 수출 유망품목

####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2941 3003 3004	수입액('20/US\$백만)	HS 2941 46.0 HS 3003 34.1 HS 3004 569.2
수입관세율(%)	0 0 0,3,4,5,6,5	대한수입액('20/US\$백만)	HS 2941 0.94 HS 3003 0.36 HS 3004 1.63
선정사유	<p>* 항암제 등 전문의약품 관련, 기존 유럽산 고가 제품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저렴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p> <p>* 전문의약품 가운데 백신, 항암제 등 일부 한국산 의약품이 소개되면서, 한국산 약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p>		
시장동향	* 벨라루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 조달 대행 기관인 '벨파르마찌야' 인터뷰 결과, 정부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존의 고가 전문의약품 대비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전문의약품 조달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함		
경쟁동향	* 유럽미국러시아인도산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벨라루스 정부 및 국공립병원에서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진출방안	* 벨라루스 보건복지부 및 현지 국공립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 목록을 확보한 후, 우리 의약품 제조기업 또는 도매상이 공급 가능한 제품에 대해 현지 진출 시행		
품목명 2	화장품		
HS Code	330499	수입액('20/US\$백만)	57.0
수입관세율(%)	6.5	대한수입액('20/US\$백만)	2.40
선정사유	* 현지 시장에서 한국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세이며, '20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92% 증가		
시장동향	<p>* 유럽산 화장품에 대한 수요와는 별도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커지고 있음. 또한 한국제품 품질에 대해 만족하여 기 사용자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음</p> <p>* 특히 마스크팩과 같은 스킨케어 제품이 시장에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음. 한국으로부터 직수입 제품뿐 아니라, 러시아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제품이 벨라루스로 우회 수입되고 있는 물량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됨</p> <p>* 벨 화장품 수입시장 내 한국 순위: ('17) 12위 → ('18) 8위 → ('19) 7위 → ('20) 4위, 점유율 입지 굳히기 필요</p>		
경쟁동향	* 러시아산, 유럽산, 자국산 등이 시장에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유럽산 화장품은 메이크업 중심이며, 벨라루스산 제품은 중산층 이하에서 주로 소비하고 있음		

진출방안	<p>* 수입상들이 대부분 영세하므로 소량 주문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러시아를 통해 간접수출보다는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궤 직수출을 통한 진출을 하는 편이 나옴. 대량 주문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꾸준한 소량주문 대응 필요함</p> <p>* 한국 화장품 인지도를 활용하며 샴푸 및 기타 목욕용품, 뷰티 관련 제품들도 시장진입 가능성이 큼</p>		
품목명 3	산업 기계류 전반 (공구, 부품 등)		
HS Code	8209 8414 8419 8479	수입액('20/US\$백만)	8209 16.0 8414 111.0 8419 112.6 8479 123.1
수입관세율(%)	8209 3,5 8414 0,5 8419 0,5 8479 0,2	대한수입액('20/US\$백만)	8209 0.96 8414 0.68 8419 0.64 8479 0.34
선정사유	<p>* 벨라루스 내 자국 제조업 육성정책이 지속 추진 중이며, 산업생산성 확대를 위해 신규 기계/설비에 대한 수요 점증</p> <p>* 대형 기계류 이외에도 중소형 식품 포장기계, 절삭기기 등 공구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음</p>		
시장동향	<p>* 벨라루스 내 제조사들은 대부분 국영기업인데, 국영기업 생산 제품의 질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 제품 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노후화된 생산 장비의 문제도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임</p> <p>* 최근 자동차 기계류 제조사 등을 중심으로 노후 장비 교체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파악되고 있는데, 무역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 분석해 보면, 금속가공기계에 대한 수요가 차츰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음</p> <p>* 정밀한 절삭/가공기술을 요하는 공구, 기계에 대한 수출이 조금씩 늘고 있고, 바이어들 인터뷰 결과, 이전에 시멘트 절삭기계만을 취급하던 바이어도 금속절삭기구를 찾는 등 시장 내 수요가 감지되고 있음</p>		
경쟁동향	<p>* 유럽산 기계/설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 편이며, 가격에서 이득을 보려는 사업자들은 중국산에 대해서도 눈을 돌리는 편임</p> <p>* 그러나, 품질 대비 가성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산 기계/설비가 우수하다는 것을 수입자들도 인지 중</p>		
진출방안	<p>* 벨라루스 현지 제조업체 대부분이 국영기업인 관계로, 입찰 참여 또는 입찰 참가 벤더를 통한 납품이 불가피함</p> <p>* 공공 조달에 전문화된 현지 벤더 중심으로 수입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진출방안임</p>		
품목명 4	자동차 부품		
HS Code	8708	수입액('20/US\$백만)	438.1
수입관세율(%)	0, 5, 10	대한수입액('20/US\$백만)	4.17
선정사유	* 벨라루스 내 한국산 자동차 부품교체 시기 도래에 따라, 향후에도 부품 수입 수요 지속 증가 예상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라루스 승용차 시장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인데, 한국산 차량 유통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한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li> <li>* HS 8708 제품군 외 차량용 필름, 차량용 전구 등도 수요가 꾸준하며, OEM 구매에 대한 수요도 상존</li> </ul>		
경쟁동향	* 중국러시아독일터키프란드일본 등이 주요 경쟁국		
진출방안	* 자체 유통망을 보유한 현지 유력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수출 확대 전략 구사가 필요함		
품목명 5	타이어		
HS Code	401110	수입액('20/US\$백만)	81.3
수입관세율(%)	10	대한수입액('20/US\$백만)	7.67
선정사유	* 최근 몇 년간 한국산 타이어 수입 증가(넥센한국타이어)		
시장동향	* 2020년 한국산 제품이 시장 3위를 차지하고 있음		
경쟁동향	* 러시아중국세르비아헝가리우크라이나 등이 경쟁국		
진출방안	* 간접수입제품의 한국궤 직수출 지원 고려		
품목명 6	의료기기		
HS Code	9018 9027	수입액('20/US\$백만)	HS 9018 192.5 HS 9027 61.6
수입관세율(%)	9018 0, 2, 3, 5, 7 9027 0, 3	대한수입액('20/US\$백만)	HS 9018 5.14 HS 9027 0.48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대 초중반에 구매했던 장비의 교체 시기 도래</li> <li>* 코로나 진단키트 및 혈액 분석 등 분석 장비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세에 있음.</li> <li>* 사립병원 증가에 따라, 의료 장비 수요 지속</li> <li>* 2020년 對한국 수입 9018류 15.2%, 9027류 32.4% 증가</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가의 초정밀 진단기기보다 사립병원에서 초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음파기기 중심으로 수요 증대</li> <li>* 진단기기, 분석 장비에 대한 수요도 차츰 늘어나는 추세</li> <li>* 과거 구매했던 장비(영상진단기기) 등의 교체수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각종 진단기기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li> </ul>		
경쟁동향	* 미국, 독일, 중국, 일본산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제품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춘 우리 제품의 진출 성공 가능성도 크다고 평가됨, 국영병원 납품 시 입찰 참가 필요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라루스 현지에 의료기기 수입기업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고, 수입 규모가 비교적 작음</li> <li>* 기존에 독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을 해 오던 바이어 대상 한국제품 소개 및 협력 확대가 필요함</li> </ul>		

품목명 7	임플란트, 치과기자재		
HS Code	902129 300640	수입액('20/US\$백만)	902129 15.0 300640 9.1
수입관세율(%)	902129 0 300640 3	대한수입액('20/US\$백만)	902129 5.8 300640 0.14
선정사유	* 2020년 한국산 임플란트가 수입시장 1위 (38.6%) 점유		
시장동향	*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임플란트는 2018년 이후 한국산이 1위. 자재류는 일본·독일산이 50% 점유		
경쟁동향	* 스위스이스라엘일본독일미국 등이 주요 경쟁국		
진출방안	* 한국산 임플란트가 시장을 넓혀감에 따라, 임플란트뿐 아니라 다양한 치과기기/부자재 (3D 덴탈스캐너, 브래킷, 기타 기자재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기회 활용		
품목명 8	동물용 백신, 동물사료 첨가제		
HS Code	300230 230990	수입액('20/US\$백만)	300230 34.0 230990 50.2
수입관세율(%)	300230 3 230990 5	대한수입액('20/US\$백만)	300230 0.00 230990 0.00
선정사유	* 최근 동물용 백신가축용 비타민어분 등 인콰이어리 접수		
시장동향	* 벨라루스는 축산가축 수가 풍부하며, 세계 10대 육류 수출국으로서 가축 백신이나 가축 사료첨가제의 수요가 다대 * 세계 4위 유제품 수출국, 벨 식품 수출 60%가 육류/유제품 * 상당수 농업기업 및 농장이 국영으로 조달을 통해 구매		
경쟁동향	* 러시아미국유럽중국폴란드세르비아 등이 경쟁국		
진출방안	* 국영농장 대상 동물 백신사료첨가제 등 조달 납품 추진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건설/플랜트
선정사유	한국기업에 대한 좋은 평판 및 벨 정부의 인프라 개발 의지
시장동향	인프라 개발 및 플랜트 건설 수요 지속 증가 예상
경쟁동향	러시아, 터키, 중국 업체와 경쟁
진출방안	현지 정부 기관 프로젝트 발주정보 입수 시 즉시 국내유관 기관 및 기업에 전파, 관련 전시회 참가
품목명 2	SW

선정사유	한국은 전자정부 및 전자통관 시스템 분야 강점이 있으며, 기타 의료진단시스템, 병원시스템 분야에도 경쟁력 보유
시장동향	벨라루스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및 의료 현대화를 위한 암 진단 프로그램, 포괄수가제 시스템 등 수요
경쟁동향	스칸디나비아, 일본, 미국, 벨라루스 업체와 경쟁
진출방안	진출방안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한 SW 현지 수출 겨냥 벨라루스 ICT분야 경쟁력은 세계적인, 기술협력 고려 가능
품목명 3	(의료)관광
선정사유	(단,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소된다는 가정하)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한 좋은 평판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
시장동향	의료 목적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 증가
경쟁동향	이스라엘, 터키, 태국, 독일, 이란 등과 경쟁 장애요인: 한-벨 직항 부재, 벨라루스인 방한 시 비자 필요
진출방안	벨라루스 병원 및 여행사와 협력 벨라루스 여행관광박람회 참가

## 4. 무역협정

###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CIS 자유무역지대 협정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몰도바	2011-10-18	2012-09-20	1994년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가 비준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서명함으로써 2011년에 협정이 체결되었다. 2015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이 시작되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효력 중단을 서명한 바 있다.
EA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 (FTA)	EAEU 5개 회원국과 베트남	2015-05-29	2016-10-05	2015년 1월 1일부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창설했다. EAEU는 베트남과 최초로 FTA 협정을 체결하였다.
EAEU-이란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관한 임시 협정	EAEU 5개 회원국과 이란	2018-05-17	2019-10-27	2018년 5월 17일, 아스타나 경제포럼에서 이란과 EAEU는 자유무역지대 설립과 관련한 정식 FTA 체결에 앞서 임시 협정을 체결(협상시작은 2015년부터임)했으며, 2019년 10월 27일에 효력이 발효되어 이란과 EAEU간 자유무역지대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영어로 표현하면, 동 협정의 정식명칭은 The interim agreement leading to the formation of the EAEU free trade zone with Iran 이다.
EAEU-중국 경제무역협정	EAEU 5개 회원국과 중국	2018-05-17	2019-10-25	2016년 6월 25일, 중국 상무부와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위원회 간에 통상경제 관련 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한 이후, 2018년 5월 17일 아스타나 경제포럼에서 협정이 체결되었다. 자유무역협정(FTA)는 아니며, 통상적인 범위 보다는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규정하는 경제무역협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문명은 The Agreement on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EAEU-China 이다.



EAEU-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FTA)	EAEU 5개 회원국과 싱가포르	2019-10-01		2015년 1월 1일부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창설했다. 협정은 체결되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발효일자는 발표되지 않았다. 동 협정은 모든 EAEU 회원국의 비준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2021년 12월 조사 기준 발효일이 미발표 중
EAEU-세르비아 자유무역협정 (FTA)	EAEU 5개 회원국과 세르비아	2019-10-25	2021-07-01	2015년 1월 1일부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창설했다. 동 협정은 모든 EAEU 회원국의 비준 절차가 최근에 완료되어 2021년 7월부로 발효되었다.

<자료원 : 유라시아경제연합 홈페이지, 벨라루스 외교부 홈페이지>

##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EAEU-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FTA)	EAEU 5개 회원국과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이 진행중이다.	<a href="https://mfa.gov.by/en/export/traderegimes/">https://mfa.gov.by/en/export/traderegimes/</a>
EAEU-이집트 자유무역협정(FTA)	EAEU 5개 회원국과 이집트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이 진행중이다.	<a href="https://mfa.gov.by/en/export/traderegimes/">https://mfa.gov.by/en/export/traderegimes/</a>
EAEU-인도 자유무역협정(FTA)	EAEU 5개 회원국과 인도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이 진행중이다.	<a href="https://mfa.gov.by/en/export/traderegimes/">https://mfa.gov.by/en/export/traderegimes/</a>
EAEU-몽골 자유무역협정(FTA)	EAEU 5개 회원국과 몽골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망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a href="https://mfa.gov.by/en/export/traderegimes/">https://mfa.gov.by/en/export/traderegimes/</a>
EAEU-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 (FTA)	EAEU 5개 회원국과 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망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a href="https://mfa.gov.by/en/export/traderegimes/">https://mfa.gov.by/en/export/traderegimes/</a>
EAEU-이란 자유무역협정(FTA)	EAEU 5개 회원국과 이란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이 진행중이다.	<a href="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dotp/sogl_torg/Documents/Статус%20по%20переговорным%20трекам/Проводимые%20переговоры%20сст_сайт_1221.pdf">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dotp/sogl_torg/Documents/Статус%20по%20переговорным%20трекам/Проводимые%20переговоры%20сст_сайт_1221.pdf</a>

<자료원 : 유라시아경제연합 홈페이지, 벨라루스 외교부 홈페이지>

## 5. 수입규제 및 관세

###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 수입금지품목

대한 수입규제를 시행한 바 없으며, 일부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이 수출에 애로를 겪은 바는 있다. 예를 들어,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2013년 9월 6일 자 관보를 통해 부식 방지 스틸 파이프(Corrosion-resistant Steel Pipes)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공고를 했다. 해당 품목의 HS코드는 7304 11, 7304 41, 7304 49, 7306 11, 7306 40 류였다.

이 외에도 2019년 3월 4일 용접 스테인리스 강관(welded tubes of stainless steel, HS코드 7306.40, 7306.61, 7306.69)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는 비교적 최근에도 이슈가 되었는데, EAEU는 2018년 8월 미국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및 유럽연합(EU)과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해 잉여물량이 EAEU 역내로 유입될 경우, 역내 철강 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으며, 2019년 6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최종 보고서(안)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3개 품목(열연, 도금, 냉연) 중 도금, 냉연은 긴급 수입제한 조치에서 제외하고, 열연(철강재(72류 일부, Rolled Metal products))에 대해서만 1년간 수입제한 조치를 부과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용 도금강판이 조치에서 제외됨으로써 공급에 큰 차질은 없었다.

이 외에도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 동맹국은 2013년 10월 2일 자 통보문을 통해 직물(Woven Fabrics)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 조치를 공고한 바 있다. 제소자는 Baltex, DetskayaOdezhda, Don-tex, Kursk Factory of Technical Fabrics, Mogotex, Tchaikovskaya Textile Company이며, 해당 조사는 2012년 9월 28일 자로 개시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벨라루스에 대한 직수입이 직수출을 상회하는 편이며, 양국 간의 교역 규모는 크지 않다. 벨라루스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무역마찰을 특별히 일으킬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 수출의 경우 러시아, 리투아니아 등을 통해 벨라루스로 우회수출되는 양이 상당하여, 벨라루스 관세청 기준으로는 원산지 등을 따져 보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한국으로의 수출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옴)

### 나. 비관세장벽

#### 인증제도

벨라루스는 국민의 생명·건강·인간의 유전자·재산·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2만 5,000개 이상의 국가표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5년 이후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이 출범하면서 인증제도는 원칙적으로 통합인증제도를 실시하게 되나, 아직 품목별, 국가별로 다른 인증도 존재하는바, 벨라루스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우선 제품이 아래 인증 중 어느 인증등록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STB(GOST-B) 인증등록: 벨라루스 국가 인증등록
- EAC 인증등록: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5개국 단일 통합인증, 벨라루스 정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규격도 있다.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발전 과정

- 2011년: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3개국 간 관세동맹(Customs Union) 출범
- 2015년: 3국 관세동맹(CU)에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가입 EAEU(Eurasian Economic Union) 출범

※ 관세 동맹 시절 통용되던 CU 인증이 5개국으로 확대되며 CU 인증에서 EAC 인증으로 명칭변경

EAC 인증은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회원국인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 간 단일통합인증제도로서 해당 인증등록을 받은 제품은 EAC(Eurasian Conformity) 마크를 부착 후 해당 5개국으로 진출 및 유통을 할 수 있다. 현재 STB(GOST-B) 인증등록제도가 EAC 인증등록제도로 개편 중이며, EAC 인증이 제정되지 않은 제품 품목만 STB(GOST-B) 인증이 적용 중인 관계로 두 인증 중 해당하는 것으로 제품 인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품마다 너무 달라서 사실 복잡한데, 예를 들면, 가전 제품군의 경우는 이미 인증이 통합되어 각 나라의 인증은 없고 EAC 인증만 존재한다. 그러면서 국가별로 추가로 TBT(기술무역장벽)을 만들어서 추가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벨라루스의 경우는 가전제품 수출을 위해 EAC 인증 외에 추가로 벨라루스만의 에너지효율 인증등록을 받아야 한다. 동물 약품의 경우 아직 EAC 인증으로 통합되지 않았고, 각국의 개별 인증을 취득하되, 1개국에서만 인증을 취득하면 EAEU 모든 국가에서 유통판매가 가능하게 다소 느슨하게 되어있다. 화장품, 일반소비재, 기계류, 부품류 등 대부분의 제품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 인증으로 통합된 EAC 인증 상태이다.

EAC 인증은 크게 적합성 인증서(CoC)와 적합성 선언서(DoC)로 구분되며, 대부분 제품의 경우 적합성 인증서(CoC)는 필요가 없으며, 적합성 선언서(DoC)가 필요하다.

참고로 적합성 인증서(CoC)는 일부 특수 기계류, 크레인, 엘리베이터, 수공구류, 테스트 장비 등 제품에 해당하며 공장심사가 필요하며, 적합성 선언서(DoC)는 화장품일반소비재를 포함 위험성이 적은 제품이 대부분 해당하며 일부 제품의 경우 서류심사로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화장품은 적합성 선언서(DoC) 형태로 현지 등록을 하고 있으며, 벨라루스뿐만 아니라 EAEU 내에서는 하나의 바이어뿐 아니라 제2, 제3, 제4의 바이어가 DoC 등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DoC는 바이어 명의로 등록하게 되어있으며, 등록을 위한 비용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협의하면 되는데, 주로 바이어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바이어가 직접 현지 인증발급을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받은 제품샘플이 품목당(최소 120mL 이상의) 3개가 필요하며, 인증등록을 위한 샘플수입 계약서도 필요하다.

참고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외한 벨라루스 현지 인증등록을 관할하는 현지정부기관은 BelGISS(<https://belgiss.by/>)이다.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경우는 상황이 약간 다른데,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인증등록은 EAEU 통합인증등록으로의 과도기에 있다. 현재 2021년 12월 31일까지 통합을 완료하기로 5개국 간 협정이 되어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국가별 인증등록과 EAEU 통합인증이 혼재해 있어,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국가별 인증등록만을 취득해도 되고, EAEU 통합인증등록을 취득해도 된다.

예를 들면, A기업이 2021년 7월 1일에 벨라루스 인증을 취득하면, 2026년 6월 30일까지는 동 인증등록이 유효하며, 다만 벨라루스에 서만 유통이 된다. A기업이 2021년 7월 1일에 EAEU 인증등록을 취득한다면, EAEU 5개 회원국에서 모두 유통이 가능하다. 그런데 A기업이 2022년 1월 1일에 인증을 취득하려 한다면 그때는 벨라루스 인증등록만은 취득이 안되고 EAEU 인증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벨라루스나 EAEU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국제공통기술문서(CTD, Common Technical Document) 수준은 유럽(EU)의 수준을 따라야 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벨라루스 현지 인증등록을 관할하는 현지 기관은 Center for Examinations and Tests in Health Service (<https://rceth.by/en>)이다.

참고로 아래는 EAEU 인증에 대해 문의 가능한 국내 인증대행전문기관 연락처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http://www.ktr.or.kr/certification/overseas/contentsid/476/index.do>

<http://www.ktr.or.kr/certification/overseas/contentsid/477/index.do>

담당자: 판축 휘루자 (러시아(EAC,CU) 및 CIS 국가 인증 책임연구원, 한국어 구사 가능)

02-2164-0024, kfirouza@ktr.or.kr

정부 1381 인증표준 콜센터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5000000045>

## TBT

### ○ 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

벨라루스를 포함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3개 관세 동맹국들은 역외 제3국과의 교역 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을 두고 있다. 상품 원산지에 근거한 별도의 수입제한조치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 수출입 금지 품목: 방사성 물질 등 위험성이 있는 폐기물,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군용 및 사제 무기류와 그 주요 부속/탄약 등

- 수출입 제한 품목: 야생 채취 약제, 야생동물 및 야생식물, 관세동맹 외부로의 수출이 금지된 귀금속 및 보석원석, 해당 귀금속과 보석원석 성분을 함유한 가공되지 않은 귀금속, 귀금속 파편 및 폐기물, 광석, 고농축 된 귀금속과 원자재, 광물자원류, 향정신성 약물류 및 최음제, 민간용 전파기기 및 고주파 장비 등

(자료원: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nontariff/Pages/ep.new.aspx>)

### ○ 유해물질규제 제도(RoHS)

벨라루스를 포함한 EAEU 회원국(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에서 판매되는 가전, 전기/조명기기, 전자통신기기 등 전기기술제품은 2020년 3월 1일부터 RoHS(유해물질규제)가 강제요구되는 적합성 확인(적합성 인증(CoC) 또는 적합성 선언(DoC))이 필요하다. 동 적합성 확인으로 제조사는 해당 제품이 전기기술제품 및 방사성 전자제품에서 위험 물질 사용제한에 관한 기술 규정 EAEU TR 037/2016을 준수함을 입증해야 한다. EAEU TR 037/2016은 2017년 2월 28일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European Economic Commission) 결정 No. 24으로 제정되어,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나 2년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2020년 3월 1일 정식 강제발효되었다.

EAEU TR 037/2016은 인간의 생명 건강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전기기술제품과 전자제품에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폴리브롬화 바이페닐(PBBs), 폴리브롬화 비닐(PBDEs) 등 6대 중금속 물질의 함량을 제한한다. 전기기술 제품 및 방사성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균질재료에서 카드뮴 농도는 0.01 중량퍼센트(wt%)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나머지 5대 성분은 0.1중량퍼센트(wt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샘플 분석 테스트 통과를 통해 적합성 확인(최대 5년 유효)을 받게 되고 EAC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EAEU 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된다.

상세 해당제품은 다음과 같다: 가정용 전기기구 및 가전제품, 정보통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조명기구 및 조명공급원, 복사기 및 사무기기, 전동공구, 화재·보안·도난경보/감시기, 전자악기, 게임기, 자동판매기, 금전등록기, 티켓발행기, 카드리더기/단말기, ATM, 자동차 스위치 및 차단기, 500V AC/DC 이하 정격전압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케이블/와이어/코드 등.

한편 EAEU TR 037/2016 기술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전기 장난감, 전기·전자 장비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태양광 패널, 육상/궤도/우주 물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제품, 전기 승강기 및 하역 장비, 항공/수상/지상/지하 수송 장비에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 배터리 및 축전지, 중고 전기·전자제품, 계측기, 의료기기, 군사/방산 장비, 원자력발전소 안전시스템을 위한 전기장치, 전기전자장비의 구성부품으로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제품, 1000V AC 또는 1500V DC 이상 공칭전압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제품 등.

해당 EAC 인증취득 관련해서는 국내외 전문 인증대행기관의 도움을 통해 취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손쉽고 빠른 대처 방법인데, 벨라루스 해당 인증대행기관은 Bellis([www.bellis.by](http://www.bellis.by))이다.

## 다. 관세제도

### 관세제도 개요

#### 1) 러-카자흐스탄-벨라루스 관세동맹

2010년 1월부터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관세동맹 회원국들은 역외 제3국에 대해서 자체 기준으로 상품군을 분류해 단일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품목에서, 단일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품목도 있어, 2017년부터 전 제품에 있어 단일관세율 적용을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관세동맹 회원국 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전 제품의 완전한 단일관세율 적용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자유무역체제와 관세동맹의 통합된 관세 특혜제도 하에 관세 특혜의 경우는 제외)

관세 동맹국 및 공동경제구역 회원국의 관세 구역으로 수입되는 제품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계절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계절관세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관세는 수입관세 대신으로 이용된다.

단일관세율은 관세의 단계적 확대와 효과적인 관세보호의 원칙에 따라 적용됐다. 실제로 원자재는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완성품과 가공생산물은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로 필요한 원자재와 기계 부품 수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관세동맹국 및 공동경제구역 회원국 내에서 제조업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완성품과 가공생산물의 수입장벽을 만들어내고 있다.

관세동맹 단일관세율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수입 제품의 과세 가격의 비율로 계산된 종가세
- 수입 제품의 단위로 계산된 종량세
- 혼합세

## 2) EAEU 창설과 새로운 관세동맹 결성

2015년 1월 1일부로, 기존의 러-카자흐스탄-벨라루스 3국 관세동맹을 더 발전시킨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창설되면서, 러/카자흐스탄/벨라루스/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 5개국 이 실질적인 관세 동맹국을 형성하고 있다. EAEU 회원국들은 세관 및 관세 규정의 분야에 서 의사 결정 권한을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관세 동맹위원회는 회원국의 국내 생산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 상품들에 대해 상시적 혹은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 일시적 관세율 인상조치는 주로 과일류, 야채류 등 일부 식료품에 적용되고 있다. 관세동맹 역내로 수입되는 축산·육류에 대해서는 관세 할당제도가 도입되고 있는바, 동 제도는 상품이 쿼터로 정해진 수입물량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에 규정보다 인화된 관세율을 적용하고, 쿼터를 초과해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한다.

특정상품의 대량수입이나 해당 상품의 수입조건으로 인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 및 산업부문에 금전적 손해가 야기된 경우, 이에 대해 특별 보호조치·반덤핑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또한, 벨라루스는 외국 정부 혹은 외국 정부 연합체가 대벨라루스 수출상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벨라루스 기업 및 산업부문에 금전적 손실을 야기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자국 기업 및 산업부문에 대해 보상조치를 취하고 있다.

## 3) EAEU 회원국 관세 통합 움직임

2018년 1월 1일 이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5개 회원국 간 관세법이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단일 세율을 갖춘 통합체제로 바뀐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일부 품목에서는 회원국마다 상호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EAEU 회원국 간 완전한 관세율 통합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관세율 알아보는 법

벨라루스 관세율을 알기 위해서는 HS코드 6자리 이상 파악이 필요하다.

벨라루스는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5개국) 회원국으로 역외 관세율이 통일되어 있다. (역내는 무관세)

다음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비록 러시아어로 되어있으나, EAEU 통합 관세율표를 볼 수 있다. 모든 내용이 러시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

색에 불편함이 있으나, 아쉽게도 EAEU에서 영어 버전으로 번역한 관세율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ett/Pages/default.aspx>

사이트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위의 링크 사이트를 클릭하면, 러시아어로 되어 있고, 숫자가 01부터 아래 방향으로 97까지 표시되어 있다.

- 이 숫자들이 HS코드 두 자리이다.

- 검색을 희망하는 HS코드 첫 두 자리를 찾은 후, 그 옆에 러시아어로 된 문장을 클릭한다.

- 그러면, PDF 파일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PDF 파일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하면 HS 코드 6~10자리 단위까지 관세율이 기재되어 나온다.

- HS코드 6자리로 관세율을 찾더라도 세부번호인 HS코드 8자리, 10자리에 따라 관세율이 조금씩 상이한 경우가 있다.

- pdf 파일을 열어서 보면 제품별 관세율을 볼 수 있는데, PC상에서 검색기능(Ctrl+F) 를 눌러 검색도 가능하다.

(다만, 6자리를 검색하실 경우 4자리 후에 스페이스 바로 1칸을 띄워서 나머지 2자리를 넣고 검색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HJS 845180의 경우 5451 80 으로 검색 필요)

## 6. 통관 · 물류

### 가. 물류정보

#### 물류정보

##### 1) 주요 무역항

벨라루스는 내륙 국가인 관계로 한국에서 출발한 벨라루스행 화물은 주로 인근 발트3국 리투아니아 클라이페다 항구 또는 라트비아 리가 항구를 통해 복합운송 방식으로 벨라루스로 반입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아시아존 물량 집중과 이에 따른 컨테이너의 부족으로 인해 컨테이너 해상운임이 크게 상승했다. 2021년 12월 기준 한국-벨라루스간 컨테이너 해상운임은 전년대비 최소 2배에서 최대 4~5배까지 상승했다. 참고로 물류대란 이전에는 제품에 따라 비용이 다소 차이는 나지만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클라이페다 또는 리가까지 20피트 컨테이너는 약 1,900달러, 40피트 컨테이너는 약 2,400달러 정도의 운송비가 부과되었다. 이에 운임을 포함한 조건으로 바이어와 계약시에는 사전에 국내 물류회사에 문의 후 최종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권장된다.

##### 2) 주요 공항

한국-벨라루스간 직항이 없는 관계로, 항공편을 통해 벨라루스로 제품을 보낼 경우, 주로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민스크로 운반된다. 20kg 미만의 제품일 경우, EMS 등을 활용한 항공 운송이 추천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부터 EMS는 잠정서비스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EMS프리미엄(UPS) 또는 DHL, Fedex 같은 특사우편만 이용 가능하다.

##### 3) 기타 참고사항

벨라루스는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내륙국가로서 물류와 유통업이 발달하였다. 철로 5,480km, 도로 102,800km, 수로 2,067km, 파이프라인 11,806km (가스 라인이 2/3) 보유 중이며, 러시아-유럽연결 원유/가스파이프라인 통과세 수입이 상당하며, 연계 석유정제/석유화학 산업 발달하였다.

물류산업은 벨라루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며, 2020년 기준 GDP의 5.1%를 차지(2017년 5.8% 대비 감소)하였다. 벨라루스 통계청에 의하면 전체 노동인구의 6.7%인 28.9만 명이 물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20년 벨라루스 전체 서비스 수출부문에서 운송서비스의 비중은 41.9%를 차지하였으며, 금액기준으로는 36.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19년 대비 8.4% 감소하였다. 벨라루스 투자 민영화청에 의하면 벨라루스 운송서비스 수출규모는 2025년에 약 52~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운송수단별 화물물동량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화물 수송량(수송한 화물 톤수에 그 화물의 수송거리를 곱함)은 파이프라인, 철도, 자동차 순이며, 수송된 화물량 자체는 자동차, 철도, 파이프라인 순이다. 2020년 기준 운송수단별 화물 수송량 비중은 파이프라인이 42.1%, 철도가 34.4%, 자동차가 23.4%, 수로/항공이 0.1%이며, 수송된 화물량 비중은 자동차가 40.1%, 철도가 31.3%, 파이프라인이 27.9%, 수로/항공이 0.7%이다. 벨라루스 국제화물수송 연맹 BAIF에 의하면, 금액기준 물동량은 자동차, 철도, 내륙수로, 항공이었으며, 이용자별로는 벨라루스 내국인고객보다 외국인고객의 이용금액이 2배 가까이 많게 차지하고 있다. 2020년 벨라루스 물류서비스 매출액은 22억 2,54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810만 달러가 늘어났다.

참고로 운송수단별 여객 운송량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여객 운송량(수송한 여객 수에 그 수송거리를 곱함)은 버스, 철도, 전차/지하철, 항공 순이며, 운송된 여객 수 자체는 버스, 전차/지하철, 철도, 항공 순이었다. 한편 2020년 기준 운송수단별 여객 운송량 비중은 버스가 44.6%, 철도가 20.2%, 항공이 15.4%, 전차/지하철이 17.1%이며, 운송된 여객 수 비중은 버스가 60.6%, 전차/지하철이 33.5%, 철도가 3.6%, 항공이 0.1%였다.

벨라루스에는 현재 58개의 물류센터가 운영 중이며, 이들의 70%는 민스크 및 민스크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 물류센터의 약

25%는 국영기업이며, 75%는 벨라루스 현지기업 및 외국투자기업이 운영 중이다. BAIF(The Belaru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Forwarders)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벨라루스 내 A급 물류창고 면적이 100만 s/m가 넘어섰다고 한다. "Warehouse real estate/logistics services 2019"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벨라루스 창고이용고객의 38%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업, 35%는 소매체인, 물류기업 19%, 제조기업 8% 순이었다.

2019년 민스크 시내의 s/m당 월평균 창고임대료는 A급 4.5~7.5유로, B급 2.5~5.0유로, C급 2.5유로 이하였으며, 가장 인기 있는 창고 유형은 면적이 500~1,000 s/m인 B급 창고였다. 민스크 외곽으로 약 10km 이상 나가게 되면 s/m 당 1유로 정도 임대료가 낮아지며, 민스크 외 지방의 경우는 주로 C급 창고의 인기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스크 다음으로 물류창고가 많은 곳은 폴란드와 국경지대에 있는 브레스트 지역이다.

벨라루스는 World Bank가 격년으로 발표하는 물류성과지수(LPI) 순위에서 2018년(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조사발표가 없었음)에 160개국 중 103위를 기록하면서 2016년 순위 120위보다 개선되었다. 적시성, 물류기업역량, 물류인프라 분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으로 꼽혔으며, 국제수송, 통관, 물류추적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World Bank가 발표하는 Doing Business 수출입 비용 분야에서 벨라루스는 인근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 비용이 낮게 나왔으며, 동유럽 평균과 비교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수입비용 분야가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같은 EAEU 회원국으로서 무관세로 수입되기 때문이다.

World Bank가 발표하는 Doing Business 수출입 통관시간 분야에서 벨라루스는 인근국 우크라이나, 러시아보다 처리시간이 빠르게 나왔으며, 동유럽 평균과 비교해서도 훨씬 빠른 수준을 나타냈다.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로부터의 수출입이 같은 EAEU 회원국으로서 통관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물류통관문제(세관부패)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2020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벨라루스는 세계 180개국 중 63위를 차지하면서, CIS 여타지역과 비교 시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벨 정부는 지속적으로 세관 등 정부기관 비리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다.

##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통관 개요

벨라루스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물품의 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세관을 거쳐야 한다. 수취인에 의해 통관 거절된 물품들은 RP로 반송처리 된다. 관세는 관세 당국이 관세 지역을 통과하거나 다른 특별한 경우에 재화나 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관세비용에는 관세율에 따른 관세와 세금, 비관세물품 등 정부정책과 관련된 다른 요금들이 포함돼 있다. 관세는 물품 금액과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관세요금에는 수입 관세, 수출관세, 반덤핑관세(anti-dumping), 상계관세, 관세 지역 내로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세관수수료 등이 있다.

2) 개인 화물 통관

개인이 반입한 상품들은 국경에서 무신고통로(green channel)나 신고통로(red channel)를 거쳐야만 벨라루스로 반입할 수 있다. 대개 무신고통로를 거치며 무신고품목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고통로를 거쳐야만 한다.

① 무신고통로(green channel) : 다음의 경우엔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무신고 통로를 지나갈 수 있다.

- 벨라루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육상운송을 통한 물품반입 시 무게 총량 25kg을 넘지 않고 총 가격이 500유로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가져온 경우에 수입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항공운송을 통한 물품반입 시에는 무게 총량 50kg을 넘지 않고 총 가격이 10,000유로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가져온 물품은 수입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다.

- 18세 이상인 경우 개인당 3L를 넘지 않는 알코올/음료, 총량 250g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배 200개비, 시가 50개, 담뱃잎 250g 등을 반입할 수 있다.

- 아울러, 가격이나 용량에 상관없이 관세 동맹국에서 개인이 개인적 용도로 들여온 중고물품("Annex 4 to the Agreement on movement of goods for personal use"에 따라서) 및 10,000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벨라루스 화폐, 외국 화폐, 여행자 수표를 소지하고 무신고로 입국할 수 있다. 수하물을 동반한 경우(경우에 따라 수하물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도 포함) 및 벨라루스나 관세 동맹국에 등록된 수송 차량을 들여온 경우에 해당된다.

② 신고통로(Red channel) : 다음의 경우엔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고통로로 지나가야 한다.

- 육상운송을 통한 물품반입 시 무게 총량 25kg을 넘거나 총 가격이 500유로 이상인 경우, 항공운송을 통한 경우는 50kg을 초과하거나 총 가격이 10,000유로를 이상인 물품은 신고서 작성 필요

- 18세 이상의 개인이 한 사람당 3L 이상의 알코올음료를 반입할 때, 맥주의 경우 5L까지만 반입 가능

- 에탄올 등

- 상세내역은 <https://www.customs.gov.by/en/krasniy-korodor-en/> 참조 ((Internet Explore에서는 열리지 않는 경우, 다른 브라우저 재시도 요망)

3) 국제우편을 통해서 들어오는 개인용도물품

벨라루스를 포함한 관세동맹국들은 만국우편조약(Universal Postal Convention)에 따라 국제우편을 관리한다.(화물위탁이나 특급배송우편(Express delivery)은 국제우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제우편은 반드시 만국우편조약에 명시된 문서들과 동반돼야 한다. 국제우편송달(교환, 보관, 배송, 제출과 다른 문제들)은 국제우편조약법과 우편배송에 관한 벨라루스 법, 그 외 다른 규정에 의한다. 벨라루스에서 만국우편조약에 따라 국제우편을 담당하는 지정기관은 벨포치타(Belpochta)이다.

Aliexpress 등 해외 인터넷쇼핑몰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자 벨라루스 정부는 2020년 5월부터 무게 총량이 10kg을 넘거나 22유로 이상의 물품을 우편으로 받을 때는 세관 신고를 반드시 하고 통관을 해야만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관세동맹규정의 수출입 금지품목과 만국우편조약에서 금지한 품목은 국제우편으로도 반·출입이 금지된다. 개인에게 발송된 국제우편은 개인에게 적용된 관세율을 따라 관세를 측정한다.

무관세 반입 기준 초과 시 적용되는 관세율은 물품가의 15%(1kg당 최소 2유로)가 부과된다. 개인적 용도

의 상품이 통관할 때는 세관수수료가 발생한다. 세관수수료는 10BYN(벨라루스루블, 2021년 9월 기준 약 4달러)로 동일하며 관세신고가 등록된 당일에 벨라루스 국립은행 환전율에 따라 부과된다. 만약 국제우편을 통해 들어온 상품이 관세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관세 당국은 수령증을 이용해 관세를 계산한다.

(자료원 : [https://www.customs.gov.by/ru/tovary\\_dla\\_lichnogo\\_polzovanija\\_s\\_uplatoj-ru/](https://www.customs.gov.by/ru/tovary_dla_lichnogo_polzovanija_s_uplatoj-ru/))  
(Internet Explore에서는 열리지 않는 경우, 다른 브라우저 재시도 요망)

#### 4) 이사 물품 수입통관

이사 물품 수입통관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하는 물품에 대해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해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이다.

이사 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주거를 설정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반입 수량 등을 감안해 인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탁으로 반입하거나 판매 목적, 특정 기계·기구 등은 이사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이사 물품은 원칙적으로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사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자와 이사 물품의 요건(외국 체류 기간에 따라 이사자, 준 이사자, 단기체류자로 분류), 이사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물품, 필수 과세물품,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물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사 물품의 반입기한을 제한하고 있다.

#### 5) 벨라루스 수입기업의 제품 통관

##### ① 한국으로부터 벨라루스까지의 주요 수출 루트 : 해상 운송

- 해상 운송 : 벨라루스는 내륙 국가이므로, 인근국인 리투아니아 클라이페다港 또는 라트비아 리가港을 통해 복합운송으로 제품이 반입되고 있다. (제품에 따라 비용은 상이)  
- 코로나 사태이후 아시아존 물량 집중과 이에 따른 컨테이너의 부족으로 인해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크게 상승하였다. 2021년 12월 기준 한국에서 벨라루스까지의 컨테이너 해상운임은 2020년 대비 최소 2배에서 최대 4~5배까지 상승하였다. 운임을 포함한 조건으로 바이어와 계약 시에는 사전에 국내 물류회사에 문의 후 최종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권장된다.

##### ② 한국으로부터 벨라루스까지의 주요 수출 루트 : 항공 운송

- 한국과 벨라루스 간 직항이 없는 관계로, 항공편을 통해 벨라루스로 제품을 보낼 경우, 주로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운반되고 있다.  
- 20kg 미만의 제품의 경우, EMS 및 특사우편 등을 활용한 항공운송을 추천한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부터 EMS는 잠정서비스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EMS프리미엄(UPS) 또는 DHL, Fedex 같은 특사우편만 이용가능하다.

##### ③ 창고 보관

- 먼저 수입된 상품은 세관의 임시창고로 이동돼 적절하게 분류 및 재배치될 때까지 보관된다.  
- 임시창고에 상품 적재를 위해 발송품의 내용, 물품 가격, 수취인의 이름과 연락처, 원산지 등의 정보가 담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문서들은 인터넷상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세관 당국은 1시간 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 세관에 문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상품적재의 날을 계수하고 임시창고의 최대 보관 기간은 2달이며 세관의 허가가 있다면 최대 4달까지 보관할 수 있다.  
- 상품이 임시창고에 보관되는 동안 상품의 종류를 분류하고 적절한 통관절차를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분류된 상품들은 종류에 따라 보세창고로 재배치된다. 적절한 분류를 위해 발송자는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세관신고서가 접수되면 증명서가 발급되며 증명서의 발행일은 상품이 보세창고로 재배치된 날로 정해진다. 상품이 창고시설로 이동한 시점으로부터 매달 창고서비스 제공에 대해 렌트비를 지불해야 한다. 보세창고의 최대보관 기간은 3년이며, 식품 등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최대 180일 이전까지는 통관을 해야 한다.

##### ④ 관세 납입

- 세관에서 통관 중에 발생한 관세의 납입은 은행의 보증을 통해 가능하다.
- 은행의 보증을 받은 세금 납부문서는 수출입 시 필요한 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 통관 시 유의사항

### 1)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율표의 어떤 품목번호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수출·입 신고 전에 세율과 수출입 제한 사항을 미리 알아두고자 할 경우,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 분류가 선행돼야 납부할 관세액이 결정된다. 특히, 품목번호는 기능이 유사하지만, 형태가 다르거나, 형태는 유사하나 기능이 다른 경우 또는 범용성 부분품인지 아니면 전용 부분품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정확한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올바른 품목분류가 중요하다.

벨라루스에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공식인증기관은 민스크중앙세관(Minsk Central Customs)이다. 따라서 품목분류사전심사의 신청은 민스크중앙세관의 관세청장에게 해야 한다.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의 신청서는 세관 당국에 등록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되며, 품목사항이 바뀌지 않았거나 신청을 취소하지 않았을 경우 유효기간은 3년이다. 벨라루스 대통령령 No.433(2006.07.13)에 의해 품목분류사전심사 비용은 품목당 300BYN(벨라루스루블, 2021년 9월 기준 약 120달러)이다.

### 2) 수입품목 통관 시 준비 필요서류

계약조건 등 상황에 따라, 일부 서류는 필요 없을 수 있으나, 통상적인 거래조건을 상정했을 때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 선하증권
- 화물인도지시서(Cargo release order)
- 상업송장
- 은행에 등록된 계약문서(Contract registered by bank)
- 도로화물탁송서류(Convention des Marchandises Routiers - CMR)
- 세관수입신고서
- 포장명세서
- 기술표준증명서 또는 적합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 보세운송서류
- 관세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계산서)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o Terra-инком(영문 : Terra Incom)

주소	220140, РБ, г. Минск, ул. Бурдейного д.16, пом. 2Н
전화번호	+375-17) 391-0731
이메일	terraincom@mail.ru

홈페이지	<a href="https://terraincom.by/">https://terraincom.by/</a>
비고	통관 대행 및 포워딩 업체, 수출입물품 인증 취득 대행도 병행

○ Карго Партнер(영문 : Cargo Partner)

주소	220075 Республика Беларусь, г. Минск, ул. Промышленная, д. 6-б, офис 6
전화번호	+375-17) 346-2381
이메일	info@cpartner.by
홈페이지	<a href="http://eng.cpartner.by">http://eng.cpartner.by</a>
비고	통관 대행 및 포워딩 업체, 수출입물품 인증 취득 대행도 병행

○ Т.Э.Л.С.-БиУай(영문 : LLC T.E.L.S.-BY)

주소	220090, Беларусь, Минск, Логойский тракт, д.22А, пом.77 офис 2
전화번호	+375-17-352-4931(ext1362)
이메일	inbox@telsgroup.by
홈페이지	<a href="https://telsgroup.com">https://telsgroup.com</a>
비고	KOTRA 민스크무역관 협력물류회사로 EU와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경계에 창고를 운영하여 양쪽 시장을 모두 공략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운송 및 창고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a href="https://telsgroup.com">https://telsgroup.com</a> , <a href="https://telsgroup.by">https://telsgroup.by</a> )

〈자료원 : KOTRA 민스크 무역관〉

# III. 투자

## 1. 투자환경

### 가.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 1) 개요

벨라루스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를 탈피하고 경제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2008년 1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칙령 1을 발표했다. 이에 인구 5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5년 동안 각종 세금이 면제되며 Golden Share(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제한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 내 투자로 인한 제반 사항은 벨라루스 공화국 투자법, 투자규정, 세법, 민법, 벨라루스 공화국이 조인한 국제협약, 벨라루스 공화국이 서명한 투자합의서 및 기타 관련 법령 및 명령의 적용을 받는다.

##### 2) 투자 관련 주요 법령

###### ① 투자법

- Law on Investment (July 12, 2013 No 53-Z), 2014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신법으로 투자 관련 가장 상위법임. 원문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http://law.by/document/?guid=3871&p0=H11300053e>)

###### ② 각종 대통령령

- 대통령령 6호(2012년 5월 7일): 중소도시 기업활동 촉진령
- 대통령령 10호(2009년 8월 6일): 투자 추가조건 신설 명령
- 대통령령 12호(2005년 9월 22일): 하이테크 파크에 관한 명령
- 대통령령 166호(2017년 5월 12일): 중국-벨라루스 산업단지 "Great Stone"에 관한 특별령

###### ③ 조세법

- TAX CODE OF THE REPUBLIC OF BELARUS (GENERAL PART) <http://law.by/document/?guid=3871&p0=Hk0200166f>
- TAX CODE OF THE REPUBLIC OF BELARUS (SPECIAL PART) <http://law.by/document/?guid=3871&p0=Hk0200166e>

###### ④ 자유경제구역(FREE ECONOMIC ZONES)법

- <http://law.by/document/?guid=3871&p0=H19800213e>

#### 투자인센티브

##### 1) 투자에 대한 국가 지원

투자에 대한 국가 지원은 벨라루스 공화국 투자유치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에 대한 국가 지원은 다음의 형태로 제공된다.

- 벨라루스 공화국 정부의 보증
- 투자 자원의 집중화

정부의 투자 지원은 투자자에게 추가 보증을 제공하는 등 기타의 형태가 제공될 수 있다. 새로운 혁신 기술을 도입하는 기관에게 제공되는 국가지원의 형태, 규모, 기간은 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각각의 경우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형태로 적용된다. 벨라루스 공화국 정부 보증은 외국 채권 또는 투자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벨라루스 공화국 은행채권 유치 시 제공된다. 벨라루스 공화국 정부의 보증 하에 외국 채권 또는 벨라루스 공화국 은행채권을 유치해 시행되는 투자 프로젝트의 국가 지원, 외국 투자 기관의 설립 시 정부의 참여 등에 관한 결정은 벨라루스 공화국 경제부에서 실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종합심사에 근거해 채택된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종합심사 시 투자 프로젝트의 주요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투자 프로젝트의 활용성과 분야별 개발 전략에 부합하는가 여부
- 투자자(기관)의 재정 상태
- 정해진 투자 조건 내에서의 기술 및 재정 확보 가능성, 투자 프로젝트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여부
- 유치되거나 신설되는 기술의 과학 기술 수준
- 생산 제품(용역, 서비스)의 경쟁력과 시장 전망, 투자자(기관) 마케팅 전략의 효율성
- 투자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안정성 비교 수치

한편 벨라루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National Agency of Investment and Privatization을 설립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http://www.investinbelarus.by/en/>)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합작법인인 Great Stone(<https://industrialpark.by/en/home.html>)을 세워 민스크 국제공항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동 벨중 합작공 단에는 중국기업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투자에 대해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외투 유치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벨라루스 정부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Great Stone'이라는 벨라루스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를 첨단기술 및 혁신제품 생산기지로 삼는 것을 궁극적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벨라루스 정부는 2017년 5월 12일, 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행정절차 간소화, 기존 세제 혜택 기간 연장, 중소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최소 투자액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 166호 (<https://industrialpark.by/investoram/dokumenty-dlya-skachivaniya/pravovoe-regulirovanie/decreed-of-the-president-of-the-republic-of-belarus-from-12.05.2017-n1661.html>)를 승인해 이 산업단지 내 외국 기업 입주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 2) 투자자의 권리

투자체결 주체와는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투자는 협정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향유한다.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 투자 프로젝트에 명시된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대지에 대해 입찰 없이 임대권을 받을 수 있다.
- 건축물 시공 시 투자 프로젝트에 명시된 불필요한 식물군을 별도의 보상 없이 제거할 수 있다.
- 임대료는 계약체결 당일에 결정되며, 투자 프로젝트의 실현까지 전 기간 임대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 투자 프로젝트에 명시된 대상물의 설계, 건축(재건축), 설비를 위해 사용된 상품(용역, 서비스), 재산권의 구매에 따라 산정된 부가세의 규모를 막론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 투자 프로젝트에 명시된 대상물의 건설, 수리, 재건축, 복구, 경관 조성 시 종합설계회사, 종합건설회사 및 기타 하도급 회사를 지정하는 도급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수주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금을 면제받는다.

- 토지임대 계약 체결권에 대한 대금
- 건축 설계 및 시공 시부터 건축물이 완공된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투자 프로젝트에 명시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제공되는 국유지에 대한 세금과 임대료
- 토지 몰수로 인한 농업 또는 임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투자 계약서 유효 기간 중 지불해야 하는 혁신기금 분담금
- 벨라루스 공화국 관세 영토 내로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과 관련해 반입되는 기계장비와 그 부속품의 반입 시 세관에 의해 징수되는 관세와 부가세

- 외국 인력의 벨라루스 공화국 고용 허가서와 벨라루스 공화국 내 노동 특별허가서 발급수수료, 투자자나 이 투자자에 의해 벨라루스 공화국 내에 적법하게 설립된 기관의 경우 벨라루스 공화국 내 임시 거주 허가서 발급수수료
- 투자자나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소유로 양도되는 건축물 (건물, 시설물), 개별 공간, 미완공된 리모델링 객체 및 기타 기초 자산의 무상 양도와 관련해 발생하는 부가세와 소득세

### 3) 추가적인 인센티브

대통령이 부과하는 인센티브는 대통령 허가가 있다면 법이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인센티브여도 제공받을 수 있다. 벨라루스는 자유경제구역, 산업단지 등에 특혜 조항을 가지고 있어, 위에서 언급된 인센티브 이외에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제한 및 금지(업종)

벨라루스 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의 벨라루스 투자가 금지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벨라루스 대통령이 특별히 허용하지 않은 국방 및 안보 분야
- 벨라루스 보건부가 규정한 약물류, 독극물류의 생산과 판매 분야
- 벨라루스 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한 법인에 대한 경제부의 동의 없는 투자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된 세부적인 산업군/품목 목록은 아래와 같다.

- 군수품(총기, 탄약, 폭발물, 폭발장치 등)
- 국방 인프라 자산(민방위 자산을 포함)
- 마약류 및 향정신성 약품의 생산 및 판매
- 생활 및 산업 쓰레기와 방사능 화학 폐기물 처리
- 귀금속 채굴 및 가공
- 취학 전 교육, 학교 밖 교육 서비스, 보육원
- 상하수도, 난방, 공공 전기
- 석유 및 석유제품 파이프라인
- 곡물 저장
- 도로, 교량, 터널, 열차 수송, 지하철, 항공관제, 국가 및 군사 공항
- 임업
- 역사 유물 및 문화재
- 통관 인프라
- 묘지공원
- 국가 위생 감독
- 벨라루스 기계 및 설비 생산 연구소의 연구 및 생산 센터, 벨라루스 분말야금
- 생산 연구센터 등
- 담배 및 맥주, 샴페인, 와인을 제외한 알코올음료 제조
- 복권 사업
- 증권, 지폐, 동전, 우표 제조
- 라디오, TV 방송(TV 수리는 가능)
-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는 환자나 동물 치료
- 벨라루스 시민을 해외로 고용 안내하는 활동

## 나.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b>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b>	<p>1) 자유경제구역(Frees economic zone)</p> <p>1998년 12월 7일에 자유경제구역(FEZ)은 외국인투자, 신기술 도입, 수출 증진, 수입대체산업 발전,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됐다. 벨라루스에는 총 여섯 곳의 FEZ가 있으며, 경제자유 구역은 최소 30년에서 50년 동안 운영된다. 법률로 벨라루스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FEZ 창립, 활동, 청산에 대한 조직기반이 처음 다져졌다.</p> <p>FEZ는 한정된 벨라루스 영토 내에서 더 많은 특혜가 제공되는 특별법적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산업, 과학기술, 수출, 무역,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산업, 보험, 은행 및 다른 활동이 진행될 것이다. 또한, FEZ는 벨라루스의 관세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관세 징수와 관련해, FEZ 경제정책의 적용방식은 관세 자유지역의 관세제도를 적용받을 것이다.</p> <p>FEZ 입주자들은 FEZ 법 제도 안에 있으며 FEZ 행정기관에 법적으로 등록된 기업가로서 법적, 자연적 개인이다. 자유경제구역(FEZ)에서는 FEZ 입주자들에게 기업활동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FEZ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FEZ 관련 행정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p> <p>2021년 9월 기준으로 벨라루스 내 FEZ에 등록된 기업 수는 총 440개사인데, 이중 실제 영업 활동 중인 기업은 429개사로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FEZ 내 입주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수는 총 135,576명이며, 평균 월 급여는 1,226BYN(벨라루스루블, 약 USD 500)이다.</p> <p>2) FEZ 입주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 프로젝트에 합당한 사업계획을 제출</li> <li>○ 투자 규모 100만 유로 이상 (3년내 투자확정시, 최소 투자 50만 유로로 감액가능)</li> </ul> <p>3) FEZ 입주자들을 위한 혜택</p> <p>FEZ내에서 생산된 상품(재화, 용역)의 판매로 얻은 소득 및 FEZ 입주기업이 다른 FEZ의 입주기업과 거래하는 상품(재화, 용역)에 소득세가 면제된다. FEZ 입주등록 후 3년간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한 부동산세가 면제된다. FEZ 입주등록 후 5년간 토지세가 면제된다.</p>
------------------------	---

### 산업단지

#### ○ 하이테크파크(High Tech park, HTP)

<b>규모</b>	1,054개사 입주 (2021년 9월 기준)
<b>위치</b>	민스크
<b>임차료</b>	입주기업의 분야, 규모 등에 따라 임차료가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세한 임차료는 하이테크파크 마케팅팀과 연락하면서 세부 정보를 받아야 한다. 문의 연락처는 아래 연락처 기입란에 기재되어 있다.
<b>관할기관 및 연락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소: 220141, Belarus, Minsk, Kuprevicha str. 1/1</li> <li>○ 전화번호: +375-17-268-6911 / (문의 전화) +375-17-268-6921</li> <li>○ 팩스번호: +375-17-268-6922</li> <li>○ E-mail: info@park.by / (문의 메일) marketing@park.by</li> <li>○ 홈페이지: www.park.by (국내에서 열리지 않을 수 있음)</li> </ul>



<b>비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근거: 2005년 9월 공표된 「Hi-Tech Park 설립에 관한 대통령령 12호」에 근거하여 설립 - HTP 운영을 위해, 정부는 별도의 독립적인 운영조직(HTP administration)을 구성</li> <li>○ 설립 목적: ICT 분야를 벨라루스 신성장 동력 및 수출 주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한 첨단산업단지로 HTP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초기에는 첨단산업 R&amp;D센터 유치 등 입주기업 선정에 있어 비교적 제한적으로 운영</li> <li>- 2014년 11월 대통령령 4호에 따라, 정보보안업체, 데이터관리센터 등 IT와 관련된 기업이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범위 확대 (현재 HTP 입주기업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솔루션, 게임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의료, 농업, 핀테크, 레이저 기술, 광학 분야 등 다양)</li> <li>- 외국 기업에 IT 아웃소싱 서비스 수출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기업 지원</li> </ul> </li> <li>○ 현황: 2006년 최초 입주기업 이후 2021년 9월 기준 1,054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 중 60%가 외국의 투자 또는 합작기업 활동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기업 비중 : 벨라루스 기업 45%, 외국-벨 합작기업 24%, 100% 외투 기업 31%</li> <li>- 입주기업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91.9%는 미국, 유럽 등 67개국으로 수출 목적</li> </ul> </li> <li>○ 입주 혜택: 소득세, 부동산세, 부가세 면제, 근로자 소득세 9%로 감면(일반기업 13%), 전체 외환 소득의 20%까지 외환보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2022년 한시적으로 2년간 입주기업 근로자 소득세를 13%로 상향 (2년간 한시적 특혜 철폐)</li> </ul> </li> </ul>
-----------	---

○ Great Stone

<b>규모</b>	112.5 km <sup>2</sup> (14개국 68개사 입주) (2021년 9월 기준)
<b>위치</b>	민스크 국제공항 인근 5km 지점, 민스크 시에서 25km 지점
<b>임차료</b>	동 산업단지 관리주체와 세부 협의 필요
<b>관할기관 및 연락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소: 222223, Minsk area, Smolevichi region, the China-Belarus industrial park 'Great Stone', Pekinskii Avenue 18</li> <li>○ 전화번호: +375-17-591-1900 / +375-29-314-3422</li> <li>○ 팩스번호: +375-17-591-1900</li> <li>○ E-mail: welcome@industrialpark.by</li> <li>○ 홈페이지: <a href="http://www.industrialpark.by/">http://www.industrialpark.by/</a></li> </ul>

<b>비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근거: 동 산업단지는 중-싱가포르 산업단지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2011년 9월 18일 체결된 벨-중 간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설립</li> <li>○ 설립 목적: 외투유치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자본을 빌어 조성 중인 동 산업단지는 벨라루스 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단계별로 단지 건설 중, 총면적 112.5km<sup>2</sup></li> <li>- 2016년 12월 1차 완공 이후, 구역별로 건설을 지속 추진 중</li> <li>- 첨단기술 및 혁신제품 생산기지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동 산업단지에서 제조된 생산제품의 수출 확대가 발전 방향</li> <li>- 유치 타깃 산업 : 기계, 전자, 화학, 바이오, 소재개발, 물류 등</li> </ul> </li> <li>○ 현황: 동 산업단지는 벨-중 간 합작이지만, 중국 이외 외국 기업의 입주도 가능, 현재 입주기업은 68개사이며, 주로 기계·정보통신·목재가공·BT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라루스 정부는 2017년 5월,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기존 세제 혜택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 166호를 승인하여 외투유치 독려 중</li> </ul> </li> <li>○ 입주 혜택: 2062년까지 토지세와 부동산세 완전 면제, 2062년까지 최초 입주 후 10년간 소득세 면제, 10년 지난 시점부터 2062년까지 소득세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AEU 역외로 완제품 수출시 동 제품 생산을 위한 장비 및 원부자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근로자 소득세 9%로 감면(일반기업 13%)</li> <li>- 2021~2022년 한시적으로 2년간 입주기업 근로자 소득세를 13%로 상향 (2년간 한시적 특혜 철폐)</li> </ul> </li> </ul>
-----------	--

○ Bremino Orsha

<b>규모</b>	3개사 입주(2021년 9월 기준)
<b>위치</b>	Belarus, Vitebsk region, Orsha district, Bolbasovo, st. Factory 1K
<b>입차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3.21. 대통령령 제106호 Bremino-Orsha 경제특구조성에 관한 법령</li> </ul> </li> <li>○ 설립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라루스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물류유통 특구를 오르샤 지역에 설립</li> <li>- 입주가능 제조업: 가전전자, 의약품, 식품, 자동차부품, 화장품, 일반소비재</li> </ul> </li> <li>○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경제특구는 유라시아횡단철도 선상 및 E30(베를린-모스크바)/E95(헬싱키-오데사) 고속도로의 교차로상에 위치하며, 인근에 Orsha 공항 위치</li> <li>- 동 경제특구의 관리기관은 LLC Bremino group과 Vitebsk 주정부임</li> </ul> </li> <li>○ 입주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 후 9년 간 법인소득세 면제, 20년 간 부동산세 면제, 장비원부자재 부가세 면제</li> </ul> </li> <li>○ 한국 기업 및 기관 진출 현황 : 현재 진출 기업 없음</li> </ul>
<b>관할기관 및 연락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 <a href="http://www.bremino-sez.by/">http://www.bremino-sez.by/</a></li> <li>○ Tel : +375-17-200-0770</li> <li>○ E-mail : <a href="mailto:office@bremino.by">office@bremino.by</a></li> </ul>

〈자료원 : 벨라루스 투자청(<http://investinbelarus.by/en/>)〉

주요 지역별 여건

○ 브레스트 FEZ (<https://fezbrest.com/en/>)

브레스트 경제자유구역은 총면적 10,802.6ha이고, 1996년에 설립돼 50년간 운영된다. 17개 생산지구로 나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투자국가로는 독일, 폴란드, 러시아가 있다.

주요 기업으로는 가정, 사무용 가구 제조업체인 JV Involux(벨라루스 기업), 침구류 제조업체인 Vegas(벨라루스 기업), 도로표지염료 및 기계 생산업체인 STiM(벨라루스 기업), 가정난방설비 및 주방용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PC Gefest-Technique(벨라루스 기업), 어류 가공 생산업체인 JV Santa Bremor LLC(벨라루스, 독일합작기업), 육류 가공업체인 FE Inco Food(벨라루스 기업) 등 20개국 74개사가 입주해 있다.

입주 선호산업: 바닥 마감재, 위생용품, 치료 및 예방의약품, 욕실 자재, 에너지 절약 기구 및 장비, 기기용 전자장비, 건설용 소규모 자동화 설비 및 기계, 향수 및 화장품, 플라스틱 파이프 등

#### ○ 비텟스크 FEZ (<http://www.fez-vitebsk.com/en/>)

비텟스크 경제자유구역은 1999년에 설립돼 향후 50년간 운영된다. 16개 생산지구로 나뉘어 있으며 총면적은 2,764ha이다. 이곳은 교통인프라가 잘 발달해 있어 경제자유구역 주변에는 5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도시가 형성돼 있다. 또한, 러시아, EU,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비텟스크 지역은 공업 생산 3위의 규모를 자랑하며, 주요 산업은 공작기계 및 전자 제품생산, 목재 가공 및 가구제조, 식료품 및 기타 경공업 등이 있다. 주요 기업으로는 식품회사인 Vicos Narungsmittel GmbH가 설립한 Vitella사(독일 기업), 광케이블 생산업체인 Soyuz-Cable(에스토니아 기업), 상·하수 정화설비 생산업체인 FORTEX Water Technologies JV(체코, 벨라루스 합작기업), 자동차 가솔린 생산업체인 Chess-Bel(미국 기업) 등 15개국 56개사가 입주해 있다.

입주 선호산업: 펜틴 및 펜틴 첨가 식품, 마그네시아 기반 제품 생산공장, 목재-플라스틱 복합체(Wooden Plastic Composition) 생산품, 생수 및 음료, 에너지 절약형 마그네시아 시멘트, 석고 물질 생산공장 등

#### ○ 고멜-Raton FEZ (<http://gomelraton.com/en/>)

1998년에 설립돼 향후 50년간 운영되며, 총 4,064.41ha 면적의 15개의 지구로 나뉘어있다. 이곳은 벨라루스 남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의 특징은 헬싱키-상트페테르부르크-고멜-키이우-소피아-아테네를 연결하는 유럽교통회랑이 관통하는 곳으로서, 좋은 지리적 입지 덕분에 교통 네트워크가 잘 발달한 곳이다.

주요 기업으로는 알루미늄 스크루캡 생산업체인 Alcopack(독일 기업), 에나멜, 알루미늄, 구리선 등을 생산하는 Gomelcable(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합작기업),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Becker-System LLC(벨라루스, 독일 합작기업) 등 17개국 69개사가 입주해 있다.

입주 선호산업: 혈액 진공 보관 용기, 목조-플라스틱 복합체 생산품, 초강도 외장 벽돌, 유리 조형물, 일회용품, 건축용 쇠기돌, 특수지붕기와 등

#### ○ 그로드노 Invest FEZ (<https://grodnoinvest.by/en/>)

2002년에 설립됐으며, 총면적은 4,195.04ha의 12개 지구로 나뉘어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그로드노 FEZ는 수출 대상 품목이나 수입대체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선호하고 있다. 그로드나 지역은 국경 지역에 접해 있어 효율적인 통관절차 및 화물수송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70% 이상이 수출되고 있는데, 주요 수출 대상국은 러시아다. 그리고 전체 제품의 약 26%는 수입대체 상품으로서 내수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기업으로는 소시지케이싱 관련 업체인 Bigan CJSC(벨라루스, 미국 합작기업), 섬유 관련 업체인 Conte Spa JLLC(벨라루스, 독일), 가구 및 주방용품 관련 업체인 ZOV-LenEVROMEBEL JLtd(벨라루스, 이스라엘 합작기업) 등 40개국 75개사가 입주해 있다.

#### ○ 민스크 FEZ (<https://www.fezminsk.by/en/>)

1998년에 설립돼 50년 동안 운영되며, 총면적은 2,791.45ha의 23개 지구로 나뉘어 있다. 민스크 경제자유구역 2,635ha의 면적 중 1,601ha는 벨라루스의 수도인 민스크 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계산업 공단은 민스크 공항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의 주요 발전 방향은 수출 및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 하이테크 생산업체 육성, 신기술 도입 및 현대식 건축자재 생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설비 생산, 가정용-산업용 폐기물 재처리 등이다.

주요 기업으로는 롤업셔터 부품생산업체인 JV ALUTEX INCORPORATED LLC(사이프러스, 벨라루스합작기업), 사무실용 가구 생산업체인 MEBELINK JLLC(벨라루스, 영국 합작기업), 케이블 생산업체인 JV CSC BELTELE CABEL(벨라루스, 러시아 합작기업), 철도 및 전자 관련 업체인 JSC STADLER MINSK(벨라루스, 스위스 합작기업), 중국 지린자동차가 투자한 브랜드명 Geely의 CJSC BELGEE(벨라루스, 중국 합작기업) 등 21개국 115개사가 입주해 있다.

#### ○ 모길료프 FEZ (<https://www.fezmogilev.by/en/>)

2002년에 설립돼 향후 50년간 운영될 계획이다. 이 지역은 모길료프 주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총 3,339.4ha 면적의 18개 지구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영국, 독일, 터키 등의 외국 기업이 투자하고 있으며, 전체 투자의 75% 이상이 화학 산업, 기계 산업, 금속가공업에 투자되고 있다. 모길료프 주는 벨라루스 인구의 12%가 거주하고 있는데 공업 생산의 16%를 차지하는 벨라루스의 주요 공업지

역 중 한 곳이다.

주요 기업으로는 플라스틱 용기 생산업체인 Jockey Mogilev, JLLC(벨라루스, 독일 합작기업), 재활용 페트병 가공업체인 FE RePlas-M(오스트리아 기업), 철도 기자재 관련 업체인 Mogilev Carriage Works, SZA0 (벨라루스, 러시아), the Austrian Concern Kronospan (companies Kronospan, Kronochem, Kronospan Steel Constructions, 오스트리아 콘체른) 등 14개국 49개사가 입주해 있다.

입주 선호산업: 화학산업단지 내 화학제품 생산, 목공단지 내 목공산업, PET BCF 직물 생산, 대규모 주물(주조) 생산산업 등

## 2. 외국인직접투자

###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1237.8	1278.5	1421	1293.1	1396.8

<자료원 : UNCTAD Stat>

###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113.8	70	49.7	16	82.2

<자료원 : UNCTAD Stat>

### 3. 한국기업 투자

####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9	1	1	10	1	1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	1	10	1	1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 LG전자 벨라루스 대표사무소(러시아 법인 소속)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대표사무소
업종	가전제품 유통 및 판매
취급분야	가전제품 (TV, 세탁기, 냉장고 등)
모기업명	LG전자(주)

##### ○ 삼성전자 벨라루스 지사(러시아 법인 소속)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지사
업종	가전제품 유통 및 판매
취급분야	가전제품 (TV 등) / 휴대폰

모기업명	삼성전자(주)
------	---------

○ SK 하이닉스 메모리 솔루션 이스턴 유럽 (SK hynix memory Solutions Eastern Europe)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법인
업종	정보통신업
취급분야	Firmware 등 연구 및 개발(R&D)
모기업명	SK하이닉스(주)

○ 금청약품 벨라루스 사무소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대표사무소
업종	의약품 유통 및 판매
취급분야	의약품
모기업명	금청약품(주)

○ 제이코멕스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법인(JKOMECS EASTERN EUROPE)
업종	화장품 유통 및 판매
취급분야	화장품
모기업명	(주)제이케이테크지엠앤

<자료원 : KOTRA 민스크 무역관>

## 4. 투자진출방식

### 가. 투자진출 형태

#### 법인

벨라루스 내에서는 법인 진출 형식에 따라 자국 내에서 거래, 세금, 회계, 세관, 통화, 관련 법률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벨라루스 진출 시 기업 형태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외국 투자자 및 외국 법인은 벨라루스 내국인이 설립하는 영리조직과 동일한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진출 형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의 형태는 크게 ①주식회사, ②유한책임회사, ③개인단일기업(개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 '나. 회사 유형'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외국 기업이 벨라루스에 진출할 때, 통상 ①현지법인, ②지사, ③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중의 하나의 형태로 진출하는데, 벨라루스의 경우 지금까지 진출한 우리 기업은 주로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다.

외국 기업이 벨라루스에 일반법인(법인 설립자금 제한 없음)을 설립할 때는 형태는 아래와 같다.

- 법인형태 : LLC, ALC, CJSC, OJSC, PUE
- 설립자금 : (LLC, ALC, PUE) 제한 없음, (CJSC) 정부기준금액의 X100 이상, (OJSC) 정부기준금액의 X400 이상 (2020년 정부기준 금액 27루블)
- 법적지위 : 외국인 일반회사(벨라루스 일반회사와 동일 취급)
- 법인구조 : 공동투자법인(내국인+외국인) 또는 외국 일반법인(외국인 100%)
- 설립자금 납부 : 법인 등록 후 1년 내 100% 완납
- 설립자금 통화 : 루블 또는 외국환
- 법인 폐업 :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폐업 가능

#### 지사

엄밀하게 얘기해서 법인과 지사는 성격상의 차이가 있지만, 회계 관련 이슈 처리상의 차이점이 대부분이며, 실제 벨라루스에서 활동함에 있어서는 법률상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외국 기업은 지사 형태로 진출해 있는 경우가 많다. 지사를 설립하는 형태는 주로 유한책임회사가 많은데, 유한책임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요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 아포스티유를 받은 사업등록증; 설립자의 여권 스캔본
- 사장이 될 사람의 여권사본과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회계사의 여권사본, 전화번호 혹은 회계업무를 대신할 회계사무소의 이름(계좌를 열기 전 필수정보)
- 상호명 대안 5개
- 회사 등록 시 설립자 부재의 경우, 공증받은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참석
- 소재지
- 기본자본금 규모(최소 자본금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음)
- 사업 시 이용할 현지 은행과 은행 주소
- 설립자의 주식 분배율
- 설립하는 회사의 활동 종류 (예: 마케팅, 판매 등)
- 사장과의 노동계약서 체결 조건(기간, 기본임금, 임금 지불 날짜 등)

#### 연락사무소



대표사무소(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를 설립하는데 법인 설립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 대표사무소는 외국 법인회사의 연락사무소 형식으로, 주요 목적은 외국 법인기업과 벨라루스 기업 간에 상업적인 관계를 증진시키며 벨라루스 시장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다. 또한, 판촉 활동 등이 가능하다. 외국 기업의 대표사무소는 일반 법인설립에 비해 등록절차가 매우 간소한 편인데, 자본금 납입 필요가 없고,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도 넉넉잡아 1~1.5개월 정도면 된다.

대표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주요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 본사의 정관 사본 2부
- 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사업등록을 증명하는 서류(사업등록 발취문) 2부(2개월 이내)
- 대표사무소의 대표 위임장(혹은 신용장)과 사본 1부
- 변호사 위임장 사본 1부
- 대표사무소의 계좌를 열게 될 은행정보(은행명, 주소)
- 현지 대표사무소의 법률상 주소(보증서)
- 대표사무소의 대표자와 회계사(혹은 회계사무소)의 여권사본, 전화번호, 이메일
- 본사의 전화/팩스 납입고지서

##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b>투자진출시 유의사항</b>	<p>1) 투자위험도 벨라루스는 2020년 8월 대선 이후 불거진 반정부 시위 및 이에 따른 야권 탄압 등의 다소 정치적인 불안, 낮은 외환보유고 및 외환위기 가능성, 불안정적인 정부 부채, 전반적인 경제의 저성장전망,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상황 등의 이유로 전반적으로 투자리스크가 낮지는 않은 편이다. 세계 3개 신용평가기관인 Fitch는 2021년 5월 벨라루스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 B(B negative)로 평가하였으며, Standard &amp; Poor's도 2021년 9월 부정적 B(B negative)로 평가하였다. Moody's는 2020년 2월 B3(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한 것이 마지막 평가였다. 한편 World Bank가 발표하는 비즈니스 환경지수인 Doing Business 2020에서 벨라루스는 190개국 중 49위를 기록하였다. 참고로 벨라루스는 자국 화폐가치 하락에 못 이겨, 2016년 7월 1일부로 기존 10,000루블을 1루블로 전환하는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을 단행한 바가 있다. 2021년 9월 벨라루스 정부 외환보유고는 85억 달러이나,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외환보유고가 30억 달러 이하면 환율방어에 정부가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p> <p>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벨라루스는 단독투자, 합자/합작투자 등 진출형태에 따른 별개의 투자애로사항은 딱히 구별되지 않는 편이다. 유선통신, 송배전 전력, 철도, 석유화학, 농업, 주류 사업과 같은 국가지정 특정산업분야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벨라루스 산업분야의 상당수가 국영기업이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거나 상대적 정부보조 특혜 등을 받고 있어서 이러한 분야에 경쟁자로 진출하는 데에는 외국기업에게 장애로 작용한다. 한편 벨라루스는 그나마 기존 EBRD나 World Bank가 자금투입을 추진했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2020년 8월 대선 이후 루카셴코 정권의 부정선거 의혹과 무자비한 야권 탄압, 반정부 언론인 체포를 위한 2021년 5월 민항기 납치사건 등으로 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며, EU 및 미국이 금융/경제제재 중인 관계로 제재 관련 몇몇 분야에 신중한 투자진출이 요구된다.</p> <p>3) 분쟁해결 현재 벨라루스에는 투자고충해결에 관한 전문적인 ombudsman 창구나 중재기관 등은 없으나, 현지 투자진출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시 현지 경제개발부 및 투자민영화청 외국인투자 자문위원회 (<a href="https://investinbelarus.by/en/fiac">https://investinbelarus.by/en/fiac</a>)에 공문으로 건의가 가능하다. 법적 분쟁시에는 벨라루스 경제법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a href="https://icsid.worldbank.org">https://icsid.worldbank.org</a>),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INCITRAL, <a href="https://uncitral.un.org">https://uncitral.un.org</a>), 벨라루스 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a href="https://iac.by/en">https://iac.by/en</a>) 등에서 분쟁을 해결이 가능하다.</p>
-------------------	--

## 다. 회사 유형

### 주식회사

#### 1) 개요

벨라루스의 주식회사는 개방형 주식회사(OJSC, ОАО - Открытое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및 폐쇄형 주식회사(CJSC, ЗАО - Закрытое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로 나눌 수 있다. 개방형 주식회사와 폐쇄형 주식회사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 ① 개방형 주식회사

- 주주의 수: 2인 이상
- 주식양도: 타 주주의 동의 없이 주식 양도 가능
- 주식공개: 일반에게 주식 공개
- 최소 자본금: 10,800루블(2020년 11월 기준 약 4,180달러)

##### ② 폐쇄형 주식회사

- 주주의 수: 2인 이상 50인 이하(50인을 초과할 경우, 개방형 주식회사로 전환 필요)
- 주식양도: 다른 주주가 매도한 주식에 대해서 나머지 주주들이 선매권을 가지고 있고, 주식 양도에 타 주주의 동의가 필요
- 주식공개: 주식은 회사 설립자와 설립자에 의해 지정된 사람에 한해 공개
- 최소 자본금: 2,700루블(2020년 11월 기준 약 1,050달러)

#### 2) 등록절차

아래의 유한책임회사 등록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벨라루스 재무부에 주식 등록절차가 추가로 필요

### 유한책임회사

#### 1) 개요

벨라루스에서 해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법인 유형은 유한책임회사(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ООО - Общество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이다. LLC 법상 설립자는 최소 2인이 되어 하며, 최대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사원의 책임은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출자액 범위 내로 한정돼 있다. 현재 상당수 러시아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이 LLC 형태로 활동 중이며 주식회사와 비교해 기업 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설립 절차의 간소화, 지분 소유자 간의 결속력 강화, 관리의 편리함 등의 이유로 LLC를 통한 기업 활동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 등록 절차

외국인이 설립하는 가장 일반적인 회사 구조인 유한책임회사(LLC)는 최소 2명의 설립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설립자가 1명일 경우 개인 단일기업(PUE, Private Unitary Enterprise) 설립만이 가능하다. 등록절차는 복잡하지 않고, 서류가 다 구비되었다면 보통 1주일 정도의 시간 안에 등록이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 등록 기관: 민스크 시청 및 각 지방정부 행정등록과
- 기간: 등록서류 제출 후 법정근무일 기준 약 15일
- 등록서류에 내용 확인이 요구될 경우 추가서류 요구 및 등록일 연장

- 수수료: 2020년 기준 27루블 (2020년 정부기준금액 27루블)
- 통상적으로 벨라루스 현지 법무법인에 위탁해 등록절차 대행
- 서비스 수수료: 약 150~300달러 수준(정부수수료 및 법인인감 제작비 제외)

## 개인사업자

### 1) 개요

개인 단일기업(PUE, ЧУП - Частное Унитарное Предприятие)은 벨라루스에서 선호하는 법인형태이다. PUE는 자본운영에 관한 책임을 그 출자자가 전적으로 지므로 LLC와 다르다. 이때 생기는 이윤이나 손실은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책임자이기도 한 개인이 받아들이고 부담한다. 개인기업은 지휘하는 데 있어서 통일성·신속성·비밀유지 등의 좋은 일면을 지니고 있으나 자본규모가 결과적으로 개인 자본가의 축재에 묶이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 필요한 자본금 지출이 불충분하다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다. PUE 법상 설립자는 최대 1인이다.

### 2) 등록절차

유한책임회사 등록절차와 동일하다.

##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 법무법인 Borovtsov and Salei

전화번호	+375-17-260-0004
주소	Svobody Square 4, Minsk
홈페이지	<a href="https://borovtsovsalei.com">https://borovtsovsalei.com</a>
이메일	info@borovtsovsalei.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벨라루스에서 가장 유명한 법무법인 중 하나이며, 영어로 된 법률 및 회계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법인등록대행, 법률자문, 회사청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법무법인 Stepanovski, Papakul and Partners Attorneys at Law

전화번호	+375-17-269-5500
주소	Kuybyshev str.16, Minsk
홈페이지	<a href="http://spplaw.by">http://spplaw.by</a>
이메일	info@spplaw.by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벨라루스에서 가장 유명한 법무법인 중 하나이며, 영어로 된 법률 및 회계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법인등록대행, 법률자문, 회사청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법무법인 JURVISTA LLC

전화번호	+375 17-396-4100
주소	220073, Minsk, Pushkina str., 50, office 05
홈페이지	<a href="http://jurvista.by">http://jurvista.by</a>
이메일	<a href="mailto:info@jurvista.by">info@jurvista.by</a>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벨라루스에서 유명한 법무법인 중 하나이며, 영어로 된 법률 및 회계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법인등록대행, 법률자문, 회사청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원 : KOTRA 민스크무역관>

## 5. 외환

### 가. 외환제도

#### 외환 제도 개요

##### 1) 개요

벨라루스에서는 모든 거래가 원칙적으로 현지화인 벨라루스 루블로 거래되어야 한다. 다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미 달러화 또는 유로로 거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는 현지화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일반적으로 벨라루스 내 법인과 개인 기업가 사이의 지불은 현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민법으로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현금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행에 직접적으로 돈을 예치하는 경우나 개설된 은행 계좌에 지불을 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현금결제 는 하루에 100단위(Basic Unit)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단위(Basic Unit, Базовая величина)는 벨라루스 정부에서 매년 정하는 기준단위 금액으로 벨라루스만의 고유제도인데 세금, 벌금, 복지 수당을 부과하는 기준단위(예를 들어, 혼인신고등록비 1BU, 실업수당 2BU, 안전벨트미착용벌금 1BU, 속도위반 1~6BU 등)이다. 동 기준단위금액을 바탕으로 정부수수료, 세금 등이 책정된다. [2021년 기준 1단위(Basic Unit)는 29루블(약 11.6달러)]

##### 2) 은행시스템

벨라루스의 은행시스템은 은행법으로 규정되며 국립은행과 타 은행들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은행은 벨라루스의 중앙은행이며 통화, 신용, 지불절차 등을 관리하며 화폐 발행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벨라루스 중앙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2022년 1월 기준으로 벨라루스에 등록된 은행(국영/민간)은 총 26개이다. (자료: <https://www.nbrb.by/system/banks/list>)

대부분의 은행 기관들은 외국 자본으로 형성돼 있다. 외국인 투자 은행과 외국인 은행의 자회사 벨라루스 내 은행 시스템에서 외자 참여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게 정해져 있다. 언급된 비율은 외국인 투자 은행과 외국인 은행의 자회사 총 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은행의 모든 자본은 벨라루스에 등록돼야 한다. 외국인 자본의 참여 비율이 이러한 한도에 달하게 되면 국립은행은 외국인 투자 은행과 자회사들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은행의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은행은 국립은행에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된다.

투자자들은 벨라루스 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정부는 개별투자사업의 성격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해 지원 결정을 한다. 주로 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벨라루스에서 투자자에 정부 보증도 제공한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정부 지원을 요청하기보다는 외부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서 투자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 3) 환율 책정 기준 : 복수통화 바스켓 환율제도

벨라루스는 고정환율, 변동환율을 채택하지 않고, 복수통화 바스켓 환율제도에 기반해서 환율을 정하고 있다. 복수통화 바스켓제도란, 보통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가기 전의 과도기적 환율제도로, 본국과 교역량이 많은 몇 개국가의 통화 시세와 국내의 물가 상승률 등의 실세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환율 결정방식이다. 교역비중이 높거나 외환시장에서 자주 거래되는 몇 개국의 통화를 한 바구니(바스켓)에 담은 것처럼 묶어 거래량에 대하여 가중평균을 정하고 여기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율을 결정한다. 특정 통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물가 상승률 등의 국내 경제변수를 반영할 수 있다.

벨라루스 복수통화 바스켓에는 미 달러화가 30%, 유로화가 20%, 러 루블화가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벨라루스에서는 달러화, 유로화와 함께 러시아 루블화 환율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 교역에서 러시아 루블이 자주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복수통화 바스켓 환율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정부가 환율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뜻이며, 경우에 따라서 환율 방어를 위해 특단의 조치들도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 4) 벨라루스 외환보유고 현황과 환율 안정성

벨라루스 중앙은행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2월 1일 기준 벨라루스 외환보유고는 84.7억 달러이다. 벨라루스의 외환보유는 수출에 따른 외환확보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러시아/중국 등 우방국으로부터의 해외 차관, World Bank, EBRD 등으로부터의 대출 자금 확보도 주요한 채널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외환보유고와 환율 간의 상관성을 분석해 보면, 대략 벨라루스 외환보유고가 25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환율 방어를 위해 정부가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외환 규제

벨라루스는 만성적으로 외화가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외환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 바이어가 수입대금으로 외화를 확보해야 할 때 정부에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간접적인 수입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벨라루스에서는 수입기업이 해외 수출기업과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대금 지급을 위한 외환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계약을 은행을 통해 정부에 등록시켜야 한다. 그리고 계약을 등록한 시점으로부터 역일(Calendar Day) 9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완료해야 한다.

특히, 수입기업이 수입 대금을 수출자에게 송금한 날부터 90일 이내 수입제품이 벨라루스에 도착해야 하는 법률 조항이 있는데, 만약 90일 이내에 제품이 도착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수입기업은 매일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벨라루스로 제품 운송 기간은 대부분 90일 이내 가능하지만, LCL의 경우 간혹 납기를 못 맞추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D/A, D/P 거래를 선호하고, 수출자에게 대금 결제 조건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들이 외환 규제 및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이 입국 시 10,00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외환을 소지하고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기재한 후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시 제출한 세관 신고서 상 외화 신고액보다 출국 시 외화 보유액이 많을 경우 외환관리법상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6. 노무

###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USD=2.4754BYN (2021년 12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56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56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
비고	기업과 개인 사업가는 수행 업무의 복잡성, 근로자의 자격 수준, 근무 환경, 기타 요소를 고려해 임금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임금 조건이 확정된 경우 벨라루스 내의 근로자에 대해 통일된 임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월 400 벨라루스 루블(약 161.6달러)이다. 임금은 제품(용역,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비용에 포함되며, 가격 형성 시 산정 요건이 된다. 벨라루스 통계에는 대졸 사무직 초임(평균임금), 고졸 생산직 초임(평균임금)에 대한 상세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상기 내용은 벨라루스 전체 평균 임금을 인용한 것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21년 1~10월까지 벨라루스 전체 명목 평균임금은 USD로 환산하였을 때, 대략 USD 560이다.				

<자료원 : 벨라루스 통계청>

### 나. 노무관리

#### 고용계약

벨라루스 내 고용은 노동법에 의해 규제된다. 이 밖에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기타 다수의 법령이 존재한다. 고용 부문과 관련해서는 벨라루스 공화국 노동사회보장부가 주관하고 있다.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조건들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임금, 근로시간, 세금납부, 휴가, 고용계약 해지조건, 근로자의 의무사항, 고용주의 의무사항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벨라루스 노동법 주요 요약내용은 KOTRA 민스크 무역관에서 영문본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다. [kotra@kotraminsk.by](mailto:kotra@kotraminsk.by)로 문의할 경우, 벨라루스 노동법 영문 요약본 제공이 가능하다.

#### 근로시간

일요일은 휴일로서 통상적으로, 주 5일 혹은 6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정상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직업군에 따라 40시간보다 적은 노동 시간이 기준 시간으로 정해진 곳도 있다.

정상 근무시간은 통상 점심 식사를 위해 제공되는 1시간의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8시간이다.

야간근무나 휴일 근무, 미성년자 노동 등에 관해서는 특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초과근무 시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며 공휴일 수당 또한 받는다.

#### 휴가

최소 연차 휴가 일수는 24일로 규정되어 있다. 현지법상 통상 캘린더데어로 휴가를 주며, 토,일이 포함된 1주일이상 장기휴가시에는 토

,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한다.

## 해고

벨라루스 노동법에 열거된 사유에 근거하여 근로자는 해고될 수 있다. 해고 절차도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 소송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고용주는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등 현격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근로자 해고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주로 근로자가 중대한 업무상 과실을 저지르거나, 업무상의 과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가 주된 해고의 원인이 된다. 또한, 회사가 폐업 또는 청산해야 하는 상황, 경영상의 환경 변화로 인해 부득이한 근로자 감원 등이 필요할 때 해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근로자 해고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노동법에 열거된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해고
- 고용 계약 기간 만료(기간제 계약의 경우)
- 근로자가 고용주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불가항력 사태) 및 기타 사유 등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최소 3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 퇴직금

퇴직금 또는 인센티브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기업의 내규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 다. 사회보장세

### 건강보험

벨라루스의 사회보장기금분담금(이하 사회보장세)은 실업자, 장애인(병약자), 생계부양자가 없는 가정(연금수령자), 임산부, 일시 노동불능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회보장세는 노령연금, 생활지원금, 출산 수당, 실업급여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사회보장세의 과세대상은 벨라루스의 고용주, 종업원, 개인,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작업공, 노동조합 근로자, 연예인, 해외 근무자 등이다.

벨라루스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장세를 지불해야 한다. 동 분담금은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이 월 급여의 1%, 고용주가 34%를 납부한다.

피고용인은 사회보장세(국민연금) 1% 외 개인소득세 13%를 개인이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원래의 총 급여에서 동 14%를 공제하여 대납하고 있다.

사회분담금의 계산은 정부에서 발행한 목록에서 언급된 것들을 제외한 임금을 통해 계산되며, 사회분담금의 상한선은 벨라루스 노동자 평균임금의 최대 4배까지이다.

건강보험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34% 세율에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해 주는 등의 복리후생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 고용보험

벨라루스에서는 고용주가 정부에 납부하는 34%의 고용주세 안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 산재보험

벨라루스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작업 현장에서의 사고나 직업병을 대비하기 위해 고용주가 노동 안전 의무보험료, 즉 산재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산재 보험료의 계산은 현지 고용인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다른 경우엔 정부에서 목록으로 명시한 특별수당을 뺀 보수에 따라 계산 하기도 한다.

산재 보험료의 표준세율은 0.6%이며, 고용주가 부담한다. 다만 법이 지정한 몇몇 직업군에 따라서 0.5~1.5%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내용에서 사회보장세 전반을 설명하였는데, 벨라루스에서는 고용주가 정부에 납부하는 34%의 고용주세 안에 건강보험, 고용 보험 등 각종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용인은 개인소득세 13% 외에 사회보장세(국민연금) 1%를 개인이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원래의 총 급여에서 동 14%를 공제하여 대납하고 있다.

## 7. 세무

### 가. 조세제도

#### 법인세

법인세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과세기간은 역년이다. 과세자는 벨라루스 국내 기업과 벨라루스 내에 해외사업장을 둔 해외기업으로 나뉜다. 벨라루스 국내 기업은 국내 소득과 해외소득 모두 과세를 적용받는다. 벨라루스 기업들은 합병할 경우 합병된 개개의 기업을 모두 과세자로 보기에 감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된 개개의 기업은 분리된 은행 계좌와 대차대조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고 법인세도 개별적으로 내게 된다. 또한, 합병 후 존속기업 중 한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다른 기업이나 모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벨라루스 내에 해외사업장을 둔 해외기업은 벨라루스 내에서 판매한 재화와 용역, 재산권을 판매했을 때 할인되지 않은 가격에 할인되지 않은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에 법인세를 지불한다. 벨라루스에서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은 18%이다.

- 일반법인: 18%
- 벨라루스 정부가 승인한 첨단제품 생산법인: 5%
- 과학기술테크노파크, 기술이전센터 입주기업: 10%
- 은행, 보험, 외환업무, 대부업 등 금융업: 25%
- \* 코로나 경제 상황으로 인해 2021~2022년 2년간 한시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와 대부금융업자의 경우 소득세가 30%로 인상되어 부과 중

과세 대상 법인은 납세신고 시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간 납세신고는 외국 회사의 대표사무소 및 벨라루스에 설립된 외국 회사도 해야 한다. 다만 벨라루스는 결손금소급공제, 결손금이월공제, 이전가격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 개인소득세

벨라루스의 일반적인 개인소득세는 13%이다.

다음의 소득들은 원천징수대상이다.

- 배당금 및 기타 관련 소득
- 채무로 얻은 이자소득
- 저작권 수익
- 부동산 소유권, 증권, 자본금 이전 시 발생소득
- 자문, 상담, 법, 소송, 배송 등의 서비스소득
- 로열티 및 기타 다른 유형의 소득(세법에 따른 목록이 존재함)

원천소득세의 총액은 계산된 소득총액에서 문서상 비용의 총액을 뺀 차이로 계산된다. 만약 소득 중 현물로 받은 소득이 있다면 이를 현금으로 고려해 계산한다. 세율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 6%: 국제요금 및 수송 규정에 따른 화물운송비(초과운임비 및 다른 비용포함)
- 10%: 유형에 상관없이 채무로 얻은 이자소득
- 12%: 주식 이전에 따른 소득, 배당금 및 관련 소득(개인단일기업이 매각됐을 때는 다른 세율 적용)

- 15%: 로열티 및 기타 다른 유형의 소득

비거주자, 외국 법인을 대신해 벨라루스 법인이 원천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해 대리납부한다. 이때 대리납부인은 법인,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몇몇 거래에서는 개인이 될 수도 있다. 원천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역월이며 대리납부인은 과세기간 다음에 오는 20일까지 원천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22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VAT) 총액은 계산된 일반 세금의 총액에서 감세의 총액을 뺀 차이로 정의된다. 벨라루스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20%이다. 부가가치세의 총액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기간의 처음 시점부터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그 합계 한도 내에서 발생주의 원칙에 따르게 돼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품의 부가가치 세액이 0%와 10%의 비율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입(수입, 생산)된 고정 자산, 해외에 위치한 곳에서 판매된 물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공제는 계산된 이후가 기준이 아니라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 ① 0% 적용 품목

- 관세 동맹 회원국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세관 절차 수속을 받는 제품
- 수출 상품을 적하, 이적, 동봉, 처분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서비스). 이는 관세동맹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상품과 같이 수출 통관절차를 밟는 상태에 한한다.
- 수출 수송 서비스
- 외국 기업이나 사업가에 의해서 수행되는 항공기와 그 엔진 등의 재정비 서비스

### ② 10% 적용 품목

- 벨라루스의 토종 상품 및 작물(화훼 및 관상용 작물 제외), 양봉 농가, 가축 사육(모피 양식 제외), 어업
- 벨라루스 영토 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돼 판매된 물품 중 세법 부록 26항(Appendix 26 to Tax code)에 의해 승인된 영유아용 음식과 보급품, 의약품 등

### ③ 20% 적용 품목

- 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 판매(재화, 서비스)의 경우. 즉 표준세율은 20%이다.

### ④ 25% 적용 품목

- 통신 서비스 (통신회사)

한편, 코로나 경제상황으로 인해 2021년부터 일부 품목의 부가가치세(VAT)가 인상되었다. 벨라루스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소비재 및 서비스가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있으나, 그간 의약품, 의료기기(보철 및 정형외과 제품), 의약품원재료, 의료기기 부품반제품, 생필 식료품, 유아용품 등은 0~10%의 낮은 부가가치세가 책정되어 있었다. 2021년부터는 이러한 낮은 부가세가 적용된 제품들이 일제히 세율이 올라가게 되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보철 및 정형외과 제품)의 경우 기존 0%에서 10%로, 의약품원재료 및 의료기기 부품반제품은 기존 0%에서 20%로, 식품유아용품은 10%에서 20%로 높아졌다. 단, 일부 생필 식품 및 기저귀 등 필수 유아용품의 경우(상세 목록은 세계개편 법령 [https://pravo.by/upload/docs/op/H12000072\\_1609448400.pdf](https://pravo.by/upload/docs/op/H12000072_1609448400.pdf) 118~120페이지 수록)는 부가세율 10%가 유예되었다.

다음의 부가가치세(VAT) 총액은 감세로 인식된다.

- 벨라루스 납세자로 등록된 판매자가 제품(재화, 서비스)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금액, 재산세
- 벨라루스로 제품 수입을 하기 위해 납세자가 지불한 금액
- 벨라루스의 납세자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기업이 벨라루스 영토 내에서 구입한 상품(재화, 서비스)을 위해 지불한 금액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1년이다. 부가가치세(VAT)의 기간을 보고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역월 또는 분기 달력으로 할 수 있다

. 납세자는 만료 보고 기간 후 세무 기관에 늦어도 그달 20일까지 세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보고 기간 만료 이후 늦어도 그달 22일까지 이루어진다.

고용인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사회적 기업의 경우 VAT가 면제된다.

## **특별소비세**

증류주, 에틸 정류 산업용 알코올류, 비식용 알코올 함유 제품류, 맥주, 칵테일류 저알코올 음료, 와인류(전체 용량 중 알코올 함유 1.2~7% 내외), 담배, 가솔린, 디젤, 바이오 디젤유, 어선용 연료유, 액화 탄화수소 가스, 천연 압축가스(자동차 연료 목적), 디젤 엔진 오일, 카뷰레터 엔진 오일, 스테이션 왜건, 알코올 함유 식료품류 등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 8.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벨라루스 민법의 파트 V는 특허법, 상표 및 저작권법,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법, 영업비밀에 관한 법 및 상업적 운영에서의 권리 보호 관련 영역뿐만 아니라 노하우에 대한 권리와 같은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벨라루스에는 "상표 및 서비스 마크에 관한 법률", "식물 다양성 특허에 관한 법률",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저작권 등의 권리에 관한 법률"과 같이 지식재산 보호의 개별 영역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이 있다.

제품 또는 방법과 관련이 있고 새롭고 진보적이며 산업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발명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한편, 장치에 관한 기술적 해결책으로 새롭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용신안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호 기간은 5년이다. 실용신안권자의 요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용신안권을 연장할 수 있다.

물품의 외관을 결정하는 예술적-구조적 해결책에 관한 것은 산업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다. 산업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신구성 및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보호 기간은 10년이나 산업디자인권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특정 상품과 서비스를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인정되고 기타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표로 보호할 수 있다.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이후 10년간씩 무제한으로 갱신할 수 있다.

저작권의 대상은 작품의 목적과 장점, 표현 방식과 관계없이 창작 활동의 결과인 과학, 문학 및 예술 작품 등으로, 개인적 비영리 권리는 무기한 보호되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일반적으로 저자의 생애와 사망 후 50년 동안 유효하다. 저작물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벨라루스는 유라시아 특허 협약 회원국으로, 유라시아 특허청(Eurasian Patent Organization)에 특허 혹은 디자인특허를 출원할 경우 벨라루스를 포함한 8개 회원국에서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 9. 청산 및 철수

<p><b>관련 법 및 절차</b></p>	<p>1) 파산 절차의 개시</p> <p>일반적으로 파산 절차의 기간은 1년을 넘기지 않는다. 단,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연장도 가능하지만, 반대 상고를 할 수도 있다.</p> <p>파산 절차의 개시와 더불어, ①모든 채무와 지불이 만기에 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어떤 채무에도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③채무자의 자산에 내려진 모든 제재가 철회된다.</p> <p>그리고 채무자의 관리 단체가 해산되며, 중재 법원이 파산 관리인을 지명하면 파산 관리인이 파산 절차 동안에 채무자의 자산을 운용한다. 파산 관리인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자 자산의 운용과 그 안전의 보장</li> <li>- 자산의 목록 작성</li> <li>- 고용인에 대한 통지</li> <li>-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이의 제기</li> <li>- 채무자의 계약을 존중하기 위한 거부 의사 표시</li> <li>- 채무자 자산의 매각과 채권단과의 청산</li> <li>- 채무자 자산 매각과 채권단과의 청산</li> <li>- 기타 법률이 정한 기능</li> </ul> <p>2) 채무자 자산의 매각</p> <p>파산 절차가 개시된 시점에서 매각 가능한, 혹은 절차 도중에 발견된 모든 채무자 자산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산자의 재산에 포함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자산(법으로 판매가 금지된 자산)과 배타적 권리(특정 활동에 참가하기 위한 채무자의 권리)</li> <li>- 공공시설, 취학 전 아동의 교육 기관 등</li> </ul> <p>채권단 회의나 채권단 위원회가 다른 절차를 도입하지 않는 한, 자산의 목록과 감정서가 작성된 후의 자산은 경매나 입찰로 매각된다. 특별 허가가 있어야 유통 가능한 자산은 비공개 입찰로 매각된다. 자산이 최초 입찰에서 매각되지 않고 유찰되었을 경우, 재차 입찰에 부쳐지거나 입찰 없이 매각된다.</p> <p>3) 채권자와의 청산 절차</p> <p>채권자와의 청산 절차는 채권자 청구권 리스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된다.</p>
-------------------------	--

## IV. 참고정보

### 1. 시장특성

####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 소비인구

벨라루스 전체 인구는 935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유아/청소년/학생 등을 제외하면 767만 명 가량의 성인 인구가 실질적인 소비인구라고 할 수 있다. 767만 명의 사회적 계층을 소득 기준 다섯 구간으로 나누면, A~E Class까지 구분할 수 있는데, A가 최상위 소득층, B가 상위 소득층, C가 중산층, D 이하가 하위 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다. 벨라루스 전체 소비인구 가운데 중산층 이하의 D/E Class 소득계층이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벨라루스에서 연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5~39세 사이의 성인들인데, 2019년 35~39세 성인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6,687달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벨라루스의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연령대는 30~44세 사이의 성인들이다. 30~44세 사이의 성인들 평균 소득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 벨라루스에서 소비되는 소위 사치품의 상당수가 이 연령대 소비자들에 의해 소비되는데, 사치품 아니라 전반적인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세대이다. 이들 세대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소비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30년경 벨라루스 소비 주도 연령대는 40~49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원 : Euromonitor 분석 자료, IHS Markit 분석 자료, 벨라루스 통계청, Statista 등>

##### 소비 성향

벨라루스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소비에서 필수소비재(Essential Spending)에 대한 지출 비중이 43%에 달한다. 필수소비재 소비 비중은 전 세계 평균이 36% 정도인데, 가처분소득이 낮을수록 전체 소비에서 필수소비재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즉, 벨라루스 소비계층의 가처분소득 수준은 전 세계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벨라루스 경제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개인들의 가처분소득도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필수소비재 외에도 소비 용처가 점점 다양해지고 가전제품을 비롯한 가정용품, 서비스 구매 등에 대한 지출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점차 도시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대도시 거주민들에게 나타나는 소비 패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1년 1월 발표기준 벨라루스 수도인 민스크(201만 명) 및 지방의 중심도시를 비롯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77.9%이다. 2017년 조사에 따르면, 도시 거주 1가구당 연간 가처분 소득 평균액은 8,670달러이며, 시골 거주 1가구당 연간 가처분소득 평균액은 6,485달러로 약 2,000달러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도인 민스크시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의 경우, 가구 당 지출하는 연간 소비액이 1만 달러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되는데, 벨라루스 전 지역에서 소비액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벨라루스 소비자들의 소비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식료품구입(35.9%), 담배/주류구입(3.3%), 의류/신발/잡화구입(9.5%), 거주/관리비(10.5%), 가정/생활용품/가전구입(7.7%), 건강 관련 지출(3.4%), 교통비(9.4%), 통신비(4.6%), 문화/레저/스포츠 관련 지출(5.0%), 교육비(1.7%), 숙박/외식비(3.1%), 기타 비용(5.8%)으로 나타났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필수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벨라루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벨라루스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중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실하다. 국내 제조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다 보니 수입산을 더 선호하지만, 가처분소득이 높지 않아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편이다. 따라서 수입산 가운데서도 품질이 좋고 중간 이하인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벨라루스의 수입기업들도 이러한 소비자의 성향을 반영한 수입 패턴을 보이고 있다.

## 한국 상품 이미지

벨라루스는 우리나라와의 교류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우리 문화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해마다 개최되는 한국영화제, K-POP 페스티벌에 많은 관객이 몰리고 큰 호응을 받고 있다. 2015년 하반기에 벨라루스 국립미술관에서 한국특별전이 열려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있던 고려인협회 산하 한글학교 외에 2014년에는 세종학당이 개원했는데, 한국어를 배우려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는 1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젊은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해 좋은 인식을 하고 있다. 현재 민스크 내 미샤, 토니모리 매장이 입점해 있으며 대형 쇼핑몰에서 그 밖의 중저가 브랜드 제품들을 볼 수 있다. 2018년에는 미샤 매장이 벨라루스 내 주요 쇼핑몰 3곳에 오픈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 LG, 현대, 기아, SK, 롯데 등 한국 기업들에 대한 벨라루스 내의 인지도 및 선호도는 높은 편이며, 일반적으로 벨라루스인들은 한국이 기술 수준이 높게 발전되어 있는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다.



## 2. 비즈니스 에티켓

### 가. 상거래 유의사항

#### 상거래 시 유의사항

##### 1) 물품 인도 조건 관련 벨라루스 바이어 특성

무역관에서 바이어들을 경험해 본 결과, 벨라루스 바이어들은 FOB보다 CIP 조건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벨라루스는 내륙국가이기 때문에, CIF보다 CIP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다.

큰 수입상 또는 현지 제조사 등 규모가 있는 바이어들은 FOB를 물품 인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수입물량이 많으므로, 자사가 거래하고 있는 물류회사 등을 직접 선정하여 이용하는 성향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세관과 커넥션 등이 있어, 쉽게 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FOB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수입상의 경우, CIP 조건을 내걸고 본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바이어 입장에서 부담은 적지만, 벨라루스 수출 경험이 적은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조건이 될 수 있다. 바이어가 CIP 조건을 내세울 때는 통관에 있어 바이어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물어보면서 상호 조율할 필요도 있다.

##### 2) 대금 결제 조건 관련 벨라루스 바이어 특성

벨라루스는 만성적으로 외화가 부족한 나라이다. 따라서 수입 바이어가 수입대금으로 외화를 확보해야 할 때, 정부에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 수입기업이 수입 대금을 수출자에게 송금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입 제품이 벨라루스에 도착해야 하는 법률 조항이 있는데, 만약 90일 이내에 제품이 도착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매일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벨라루스로 제품 운송 기간은 대부분 90일 이내 가능하지만, LCL의 경우 간혹 납기를 못 맞추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D/A, D/P 거래를 선호하고, 수출자에게 대금 결제 조건을 수용해 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첫 거래부터 외상거래를 제안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것이다. 우리 기업의 경우, 50% 미만에서 T/T 선지급을 하고, B/L을 바이어에게 보내면서 잔금을 지급해 줄 것을 제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바이어 입장에서도, 제품 하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조건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16년까지 L/C 개설은 우리나라 시중은행에서 벨라루스 은행의 금융상품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시중은행도 L/C 개설을 종종 하고 있다. 다만, 벨라루스 바이어들이 L/C 거래 경험이 적어 송금 거래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일부 벨라루스 기업들(BELNEFTEHIM 및 그 자회사 등)은 유럽과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과의 수출대금 거래 관련 상품을 은행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시중은행, 미국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은 경제제재 대상 기업과의 금융거래를 일단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경우, 벨라루스 기업 및 은행과의 직접적인 거래보다는 벨라루스 기업 및 은행과 거래를 하는 제3국 은행을 중간에 넣어서 금융거래하는 것도 방법이다.

### 나. 상담 유의사항

####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엄연히 다른 나라이며 다른 시장이다. 상당수의 우리 기업이 현재 러시아 바이어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들 러시아 거래처 중 대부분이 자기네가 벨라루스까지 커버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를 들어 의료기기처럼 러시아에 제품인증을 받을 것을 벨라루스에서는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음), 설사 벨라루스까지 커버가 된다고 할 경우에도 벨라루스 디스트리뷰터 입장에서는 러시아 바이어가 중간 마진을 붙여서 제품을 팔게 되므로 가격이 높아져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높은 단가로 인해 다량 주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많은 벨라루스 바이어들은 한국기업과의 직거래를 희망하고 있으며, 벨라루스 바이어 입장에서는 한국기업과 직거래를 할 수 있다면 러시아 바이어의 중간 마진이 줄어들게 되므로 좀 더 나은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으므로 시장에서의 판매량을 늘릴 기회가 된다.

참고로 벨라루스는 러시아보다는 평균 소득수준이 다소 낮아 러시아보다 오히려 더 좋은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좋은데, 벨라루스 디스트리뷰터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통해 마진이 붙은 가격으로 들어오니 벨라루스에서의 판매가 더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현재 거래 중인 러시아 바이어가 있다면 벨라루스까지 판매권을 가진 독점바이어가 아닐 경우 벨라루스 바이어와의 직거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거래 중인 러시아 바이어가 벨라루스 지역까지 커버하는 조금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바이어일 경우 향후 계약 기간 연장 또는 갱신 시점에 벨라루스 판매권은 독점이 아닌 것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벨라루스 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벨라루스에서 직접 사업을 할 경우, 벨라루스 정부 인사 및 기업인들의 특성을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1) 약속

벨라루스 내 관료주의(red-tape)는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므로 사전에 약속을 정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커뮤니티 내에 좋은 평판과 인맥을 가진 대리인을 통해 약속을 잡는 것이 좋다. 미팅 전 만나기로 한 회사 CEO 혹은 책임자에게 당신이 누구이고, 당신의 회사가 어떠한 사업에 관심이 있으며, 당신의 회사가 제시할 수 있는 제안 및 지원에 대해 알리는 것이 좋다. 가급적 대리인이 위와 같은 정보를 사전에 해당 CEO에게 알리는 편이 좋다.

#### 2) 인사

공적인 만남 시 벨라루스 사람들은 비교적 절제된 분위기이다. 따라서 벨라루스에서 비즈니스 만날 때면 악수만으로도 충분하다. 만약 상대방과 좋은 관계가 형성돼 있다면 다소 열렬한 분위기에서 포옹이나 뺨에 가벼운 키스를 나누며 만날 수도 있다.

#### 3) 선물

벨라루스에서는 상호 간에 면담이 끝나면 조그만 선물을 서로 주고받기도 한다. 최근에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는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 기관을 방문하거나 할 때는 간혹 기념품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정부 관료들의 경우, 통상의 기념품의 수준을 벗어난 물건을 선물할 경우,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다. 벨라루스에서는 반부패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경우 주변으로부터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선물을 받을 때도 조심하는 경우가 많다.

#### 4) 협상

미팅은 격식 있으면서도 다소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 만약 미팅에 대해 확실히 아는 바가 없다면 그들의 행동을 관찰한 후 그대로 따라가도 무방하다. 그리고 협상에 있어 인내심을 갖고 자신의 명확한 의견을 고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벨라루스 사람들의 협상 목적은 단 하나, 타협에 있어 양보이다. 그들에게 양보할 만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다. 만약 협상 상대방이 협상 장소에서 나가버린다면 흥분하지 말고 평온함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전체 협상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상대가 화를 내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협상이란 여러 단계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당신이 한 측면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해도 이러한 동의

가 전체 협상에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더 높은 단계에서 협상의 다방면을 고려할수록 벨라루스 협상가들로부터 “Yes”라는 대답을 얻기 쉽다. 한편, 협상 이후 실질적인 거래 개시까지는 오래 걸릴 수도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

#### 5) 문화적 유의사항

벨라루스에서 문화적으로 금기사항이 많지는 않지만, 벨라루스 사람들과 만날 때 아래의 행동 정도는 유의하고 피해야 한다.

- 자리에 앉을 때 다리를 벌리고 앉는 것과 발을 의자나 탁자 위에 올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 건물 안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은 불운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 침을 뱉는 행위를 매우 비위생적이고 불쾌하며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 6) 주의해서 불러야 할 정식 국명 (벨라루스 O, 벨로루시 X)

벨라루스(Belarus) 사람들은 자국을 벨로루시(Belorussia, 백러시아)라고 외부에서 부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 소련시절 연방의 일부분으로서 벨로루시라 불렸으며, 지금도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러시아의 속국처럼 취급하여 벨로루시라고 부르는데, 벨라루스는 1992년 독립하면서 ‘벨라’(하얀, 순수한) ‘루스’(동슬라브계 루스민족)로 별개의 민족국가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 중이다.
- 이에 바이어 등 현지인을 만나면 국명을 ‘벨로루시’라 하지 마시고 ‘벨라루스’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나, 벨로루시 라고하면 벨라루스인 입장에서 마치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조선, 또는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한국인을 조선진, 동해를 일본해 라고 부르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다.

### 3. 주요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 1) Onliner (<https://onliner.by>)
  - 개요: 5개의 주요 섹션(기술, 자동차, 부동산, 사람, 포럼)을 벨라루스의 대표 포털의 하나로 상품 및 서비스의 마켓플레이스(<https://catalog.onliner.by>)도 겸하고 있다. 리서치 회사인 Gemius에 따르면 2020년 동 포털은 벨라루스 인터넷 사용자의 52.08%가 사용중인 포털이다. 동 포털의 기원은 휴대전화와 통신산업 등에 관한 블로그였으나, 동명의 온라인 뉴스 및 자동차와 부동산 관련 베흐시장 서비스 기능이 더해지면서 점차 기능이 확장되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2001년 설립되었으며, 정확한 매출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 주요 판매 품목: 거의 모든 분야의 제품이 판매되는데, 대표적으로 전자, 컴퓨터, 통신제품, 가전, 식품, 의류, 미용제품, 스포츠용품, 레저용품, 유아용품, 아동용품, 학용품, 사무용품, 가정용 건축자재, 정원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각종 용역 및 서비스 등이 있다.
  - 특징: 베흐시장 기능이 있어서 중고거래장터의 기능도 갖추고 있으며, 2020년부터 Onliner Pay 결제시스템도 출시하였다.
  
- 2) Deal.by (<https://deal.by>)
  - 개요: Deal.by는 매월 약 6백만 명의 사용자가 방문하는 벨라루스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플랫폼 상 약 7,000개의 회사와 1,300만 개 이상의 제품이 거래 중이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2019년 기준 약 9,140만 루블(약 4,37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 주요 판매 품목: 거의 모든 분야의 제품이 판매되는데, 대표적으로 전자, 컴퓨터, 통신제품, 가전, 식품, 의류, 미용제품, 스포츠용품, 레저용품, 유아용품, 아동용품, 학용품, 사무용품, 가정용 건축자재, 정원제품, 자동차용품, 각종 용역 및 서비스 등이 있다.
  
- 3) 21 vek (<https://www.21vek.by>)
  - 개요: 21vek.by는 800,000개 이상 제품을 취급하는 비식품 분야의 전문 온라인 마켓입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2019년 기준 약 1억 4,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 주요 판매 품목: 비식품 소비재 분야인 가전제품, TV, 영상기기, 휴대기기, 전자제품, 컴퓨터, 배관 설비, 인테리어 용품, 가구, 수리용품, 자동차용품, 정원제품, 유아용품, 아동용품, 미용제품, 스포츠용품, 레저용품 등이 있다.
  - 특징: 15,000평방미터의 자체 창고 및 자체 배송서비스, 콜센터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에 자체 할부결제 금융 서비스 21vek.finance가 출시되었다. 또한 회원이 적립 포인트로 구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보너스 프로그램이 있으며, 고객들에게 제품설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4) OZ.by (<https://oz.by>)
  - 개요: 벨라루스 최초의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하였으며, 최대의 서점 및 문방구, 팬시류 판매 사이트로 자리잡은 이후, 현재 화장품, 가정용품, 유아용품, 아동용품, 식품, 스포츠용품, 레저용품, 가전제품 판매 쪽으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정확한 매출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 주요 판매 품목: 책, 문구, 팬시용품, 기념품, 보드게임, 창작물, 유아용품, 아동용품, 화장품,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레저용품,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 식품, 가정용품 등이 있다.
  - 특징: 2009년부터 자체 소매점 네트워크(15개 도시에 35개 매장)를 보유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한 기업성격이 반영되어 각종 마스터클래스, 문학 및 교육 강의, 양방향 대화 및 퀘스트 형식으로 많은 무료 이벤트가 개최된다.
  
- 5) Mila (<https://mila.by>)
  - 개요: 벨라루스 최대 온/오프라인 드럭스토어 체인으로 아직까지 편의점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벨라루스에서 각종 화장품 및 생활용품을 판매 중이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정확한 매출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 주요 판매 품목: 화장품, 뷰티용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팬시용품 등이 있다.
  - 특징: 2007년에 설립된 벨라루스 최대의 온/오프라인 드럭스토어 체인으로, 현재 550개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이며, 2022년까지 100개 이상을 더 늘릴 계획이다. 2019년 Zubr Capital과 EBRD가 Mila Company Group의 지분 20%(투자규모 350만 달러)를 인수하였다.

6) Wildberries (<https://by.wildberries.ru>)

- 개요: 2012년 벨라루스 시장에 진출한 러시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이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2019년 기준 약 30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 주요 판매 품목: 거의 모든 분야의 제품이 판매되는데, 대표적으로 전자, 컴퓨터, 통신제품, 가전, 식품, 의류, 미용제품, 스포츠용품, 레저용품, 유아용품, 아동용품, 학용품 등이 있다.
- 특징: 2017년 러시아 1위 온라인 쇼핑몰로 등극하였으며,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EAEU 국가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독일 등 EU국가에도 진출하였다. 모스크바에 대형 자체 물류센터를 보유중에 있다. 벨라루스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러시아 쇼핑몰인 관계로 벨라루스 루블이 아닌 러시아 루블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 가. 성공사례

벨라루스 현지 기술인력 활용 아웃소싱 성공사례 - SK하이닉스의 벨라루스 현지 기업 인수·합병

2014년 6월,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 개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소프텍 벨라루스(Softeq Development FLLC., 이하 소프텍)의 펌웨어 사업부를 1천만 달러에 인수했다. 소프텍은 벨라루스는 민스크시에 있는 펌웨어, 웹,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아웃소싱 전문 업체로, 2008년 설립 이후 낸드플래시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펌웨어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 회사 펌웨어 사업부의 기술, 인력, 자산 등을 인수해 낸드플래시 솔루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펌웨어는 낸드플래시 컨트롤러에 내장되어 제품 속도와 안정성 등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가 고성능, 다기능화되고 솔루션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양해짐에 따라 펌웨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수한 펌웨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업체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2014년 이전부터 SK하이닉스는 소프텍으로부터 아웃소싱 서비스를 받아 오다가, 소프텍의 기술력과 그 간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동사를 아예 인수하게 된 것이다.

인수합병 후에도, SK하이닉스에서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여 왔고, 벨라루스 내 법인을 활용하여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해 왔다. 2018년 9월에는 신규 사무실로 이전해서 추가적인 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새롭게 문을 연 사무실은 2,000㎡ 규모로 직원은 200여 명이 상주한다. 법인 설립 초기에 비해 인력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SK하이닉스의 벨라루스 투자 진출은 벨라루스 정부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외투유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진출에 힘입어, 최근 국내 중견/중소기업 및 IT 관련 기업이 벨라루스 내 IT 엔지니어로부터 아웃소싱 서비스를 받으려는 문의가 차츰 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성공사례는 우리나라와 벨라루스 간 R&D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자료원 : SK하이닉스 보도자료 참조)

## 5. 출입국 안내

### 가. 비자

#### 종류 및 발급절차

##### 1) 체류 기간별 비자 유형

- 통과비자("B"): 유효기간 2일
- 단기비자("C"): 유효기간 90일 이하
- 장기비자("D"): 유효기간 1년 이하, 체류 기간: 90일 이하

과거 벨라루스 방문 시에는 반드시 비자가 필요했으나, 2017년 2월 12일부터 5일간의 단기 무사증 방문이 가능해졌고, 2018년 7월 27일부터 무사증 방문 기간이 기존 5일에서 30일로 늘어났다. 단,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는 2008년 7월 24일 무비자 협정이 발효돼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 주한 벨라루스 대사관이나 벨라루스 대사관 및 영사관이 소재한 제3국에서 받을 수 있다.

30일간의 단기 무사증 방문 목적시, 여권, 1일당 25유로 이상의 체재비, 영문 혹은 러시아어로 작성된 의료보험(적용국에 벨라루스 포함, 1만 유로 이상 보장보험 적용)을 소지해야 하며, 벨라루스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보험 증서의 경우, 한국에서 Worldwide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민스크 공항 "Arrival Zone"에서 구매 가능하다. 해당 무사증 제도는 육로가 아닌 민스크 국제공항을 통한 출입국에만 해당하며, 러시아를 통해 벨라루스로 입국할 경우, 국내선 공항으로 입국하게 돼 별도의 국경통과절차가 없는 관계로 사증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단기 무사증 방문 시 30일을 초과해 체류할 경우, 3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초과체류 사유 서류를 첨부해 주재국 내무부 이민국에 출국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입국일을 1일로 산정함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입국 후 30일이 경과한 후 사증 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불법체류로 간주해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외국인이 벨라루스에서 캘린더데일로 5일을 초과해서 체류할 경우, 비자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 입국일과 출국일을 포함해서 5일이며, 거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체류 6일째가 되는 날부터 현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호텔 등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체크인 시, 숙박업소에서 거주 등록을 하므로 별문제가 없다. 하지만 아파트 임대 또는 지인의 거주지에 체류할 경우 벨라루스 이민국을 방문해서 거주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러시아에서 육로를 통해(기차, 자동차 편 등) 폴란드 또는 우크라이나로 가거나,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러시아로 가는 경우 도중에 벨라루스를 통과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목적지가 벨라루스가 아닌 경우에도 벨라루스 통과 시에는 반드시 통과 비자를 사전발급 받아야 한다.

관광비자의 최대 체류 가능 일수는 30일로, 10일 미만 체류 시 체류 기간 내 투숙예약을 확인하는 호텔 측 담당자 공문(이메일 가능)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고 10일 이상 체류 시 벨라루스 여행사에서 발급된 초청장이 필요하다. 단 벨라루스 현지 거주지(호텔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므로 입국 전 호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방문 기간 30일 미만 상용 비자의 경우, 방문 사유·초청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비자발급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하면 초청장 없이도 비자발급이 가능하다. 방문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 방문자의 인적 사항과 초청기관 등이 적시된 초청장이 필요하며, 최대 체류 가능 기간은 90일이다. 연간 90일 이상 벨라루스 장기 체류 희망자는 벨라루스 대사관에서 단기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후 비자 유효기간 이내 현지 주소지의 관할 이민국에 체류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유학비자의 경우, 초청 학교의 초청장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광비자와 상용 비자는 2~3회까지 벨라루스 입출국이 허용되는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다. 3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상용 비자 발급 신청 시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초청장 필요 여부가 상이하다.

여행 비자로 방문해 벨라루스 현지에서 여행비자 기간연장이나 상용 비자(C)로 비자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니 입국 비자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2)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 벨라루스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korea.mfa.gov.by/ko/>)

① 통과비자("B"): 통과 목적으로 벨라루스를 입국하는 자에 한해서 발급되며 입국한 날부터 이틀간 유효하며 최종 목적지 국가 비자에 명시된 입국 횟수에 따라 1회, 2회 및 복수 형태로 발급이 된다.

- 여권(벨라루스 출국 예정일을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함)
- 비자 신청서(사진 부착)
- 증빙 서류(최종 목적지 국가의 비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경우 항공권-기차표 사본, 항공권-기차표 예매 확인서 등)
- 여행자 보험증 사본('여행자 보험 규정 변경 안내' 참조)

② 단기 비자("C"): 비자 유효기간이 90일 이하이며 복수 입국 시 연간 체류일수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2회 및 복수 형태로 발급할 수 있으며 비자 유효기간, 체류 기간 및 허용 입국 횟수는 초청장에 기재된 정보를 토대로 한다(초청장 없이 발급 시 비자 신청서에 기재한 대로 발급).

- 여권(벨라루스 출국 예정일을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함)
- 비자 신청서(사진 부착)
- 초청장(방문 목적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 표 참조)
- 여행자 보험증 사본('여행자 보험 규정 변경 안내' 참조)

③ 장기비자("D"): 유효기간 1년인 장기 비자의 경우에도 벨라루스에서 체류하는 일수의 합이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복수 입국). 90일 이상 장기 체류 허가는 벨라루스 현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 여권(벨라루스 출국 예정일을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함)
- 비자 신청서(사진 부착)
- 현지 여행자 보험증 사본(한국 국민의 경우 입국수속 시 가입하므로 비자 접수 시 불필요)
- 벨라루스 측 초청기관이 작성한 초청장 원본
- 초청 기관의 "벨라루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기부"의 등본 원본 혹은 '법인 등록 증명서'의 현지(벨라루스)에서 공증된 사본(발급 혹은 공증 후 1년 미만만 경과한 서류)
- 벨라루스 초청기관과 신청자(혹은 신청자가 소속한 기관) 간의 정기적 협력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계약서, 협력 협정, 협약 등) 사본, 혹은 신청자(혹은 신청자가 소속한 기관)가 벨라루스 회사에 자금을 투자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벨라루스 측 회사 설립 서류 등)에 벨라루스 현지 기관이 혹은 대사관 영사가 원본 대조필한 사본

3) 주한 벨라루스 대사관 안내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45길 51 (우) 04348
- 연락처: 02) 2237-8171(대표, 영사과), 02) 2237-8173(상무과), 010-2568-2291(영사 긴급호출)
- 팩스: (+82-2) 2237-8174
- 이메일: korea@mfa.gov.by(대표), korea.trade@mfa.gov.by(무역 및 투자 문의), korea.consul@mfa.gov.by(영사문의)
- 홈페이지: <http://korea.mfa.gov.by/>
- 본 대사관의 영사 업무시간(비자, 공증, 기타): 9:30~12:00(월~금)

## 나. 휴대품 통관

### 휴대품 면세

개인이 반입한 상품들은 국경에서 무신고통로(green channel)나 신고통로(red channel)를 거쳐야만 벨라루스로 반입할 수 있다. 대개 무신고통로를 거치며 무신고품목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고통로를 거쳐야만 한다.

1) 무신고통로(green channel) (<https://www.customs.gov.by/en/zeleniy-korodor-en/>) (Internet Explore에서는 열리지 않는 경우, 다른 브라우저 재시도 요망)

벨라루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무게 총량 25kg을 넘지 않고 총 가격이 500유로(항공운송의 경우 50kg, 10,000유로)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가져온 물품은 수입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다. 매년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점에 바뀔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나, 크게 변동은 없다.

18세 이상인 경우 개인당 3L를 넘지 않는 알코올/음료, 총량 250g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배 200개비, 시가 50개, 담뱃잎 250g 등을 반입할 수 있다. 아울러, 가격이나 용량에 상관없이 관세 동맹국에서 개인적 용도로 들여온 물품("Annex 4 to the Agreement on movement of goods for personal use"에 따라서) 및 10,000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벨라루스 화폐, 외국 화폐, 여행자 수표를 소지하고 무신고로 입국할 수 있다.

수하물을 동반한 경우(경우에 따라 수하물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도 포함) 및 벨라루스나 관세 동맹국에 등록된 수송 차량을 들여온 경우에 해당된다.

2) 신고통로(Red channel) (<https://www.customs.gov.by/en/krasniy-korodor-en/>) (Internet Explore에서는 열리지 않는 경우, 다른 브라우저 재시도 요망)

다음의 관세품목을 수입한 경우에는 개인 수화물이라도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 육로 입국 시 500유로(항공기로 입국 시는 10,000유로)를 넘는 물품 또는 육로 입국 시 25kg(항공기로 입국 시는 50kg)을 초과하는 물품
- 18세 이상의 개인이 한 사람당 3L 이상의 알코올음료를 반입할 때
- 에탄올
- 수입금지품목을 들여온 경우
- 증서(증권)이나 10,000달러를 넘는 벨라루스 화폐, 외국 화폐, 여행자수표를 들여온 경우
- 수하물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도 포함) 또는 화물 운송이나 특급배송으로 도착한 경우

## 6. 유관기관

###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 주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375-17-215-0170~4
주소	220002, Belarus, Minsk, Storozhevskaya str. 10
홈페이지	<a href="http://overseas.mofa.go.kr/by-ko/index.do">http://overseas.mofa.go.kr/by-ko/index.do</a>
비고	업무시간 외 긴급 연락처 : +375-29-369-1320 벨라루스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기관은 대사관과 KOTRA 무역관뿐이다.

#### ○ 세종학당 민스크

전화번호	+375-29-702-0635
주소	220030, Belarus, Minsk, Leningradskaya str. 20
홈페이지	<a href="http://minsk.sejonghakdang.org/blog/main.ksif">http://minsk.sejonghakdang.org/blog/main.ksif</a>
비고	세종학당 민스크는 우리나라 세종학당재단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2013년 10월 1일 벨라루스 민스크에 개설하였다. 벨라루스 현지 출장에서 한-러 통역이 필요할 경우, 세종학당을 통해 통역사를 추천받을 수도 있다.

<자료원 : 주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세종학당 민스크 홈페이지 >

###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 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실

전화번호	+375-17-222-3503
주소	Karl Marx str. 38, Minsk, Belarus, 220030
홈페이지	<a href="http://president.gov.by/en">http://president.gov.by/en</a>
비고	우리나라 청와대와 같은 곳이다. 벨라루스 내 정부부처 홈페이지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다 소개되어 있다. 해당 URL은 다음과 같다. <a href="http://president.gov.by/en/state-bodies/">http://president.gov.by/en/state-bodies/</a>

#### ○ 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Belarus

전화번호	+375-17-222-6046
------	------------------

주소	220010 Belarus, Minsk, Sovetskaya str 11 (House of Government)
홈페이지	<a href="http://www.government.by/en">http://www.government.by/en</a>
비고	벨라루스 장관회의는 핵심 국가권력 행정부이며, 장관들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BELTA (BELARUSIAN TELEGRAPH AGENCY)

전화번호	+375-17-327-1992
주소	Kirova str. 26, Minsk, Belarus, 220030
홈페이지	<a href="https://eng.belta.by">https://eng.belta.by</a>
비고	벨라루스의 관영지이다. 벨라루스 정부의 모든 활동과 보도자료가 동 관영지 홈페이지에 기사화되어 게재되고 있다. 벨라루스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에 대한 기사를 모두 접할 수 있으며, 러시아어/벨라루스어/영어/독일어/스페인어/중국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 Beloruskaya Gazeta

전화번호	+375-17-399-3893
주소	220073 Belarus, Minsk, Kalvariyskaya str. 33, office 46
홈페이지	<a href="http://www.belgazeta.by">http://www.belgazeta.by</a>
비고	벨라루스 일간지 중 유력신문 가운데 하나이다. 홈페이지 영어 서비스가 되지 않아, 러시아어를 모르는 경우 활용하기 어렵다.

◦ Onliner.by

전화번호	+375-17-328-1976
주소	220089 Belarus, Minsk, Dzerzhinskogo ave 5-613
홈페이지	<a href="https://www.onliner.by">https://www.onliner.by</a>
비고	Onliner.by는 기술, 자동차, 부동산, 사람 및 포럼의 5개 주요 섹션을 포함하는 벨라루스 주요 포털로서, 전자상거래시장 역할도 하고 있다. 홈페이지 영어 서비스가 되지 않아, 러시아어를 모르는 경우 활용하기 어렵다.

◦ Belorusy i Rynok

전화번호	+375-17-272-9021~2
주소	Karl Marx str. 15-403, Minsk, Belarus, 220030
홈페이지	<a href="http://www.belmarket.by">http://www.belmarket.by</a>
비고	벨라루스 경제 일간지 중 하나이다. 경제/산업/상업 관련 내용만 주로 다루고 있다. 홈페이지 영어 서비스가 되지 않아, 러시아어를 모르는 경우 활용하기 어렵다.

<자료원 : 벨라루스 대통령실 홈페이지, 각 언론사 홈페이지 등>

## 7. 물가정보

### 가. 물가정보 표

1 USD : 2.4754 벨라루스루블 (2021년 12월 기준)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2.420
2	식품	쌀	0.9kg	1.040
3	식품	소고기 등심(스테이크)	1kg	8.560
4	식품	라면(신라면)	1봉지	2.420
5	음료	커피(아메리카노)	1잔	1.820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0.26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0.560
8	의료	항생제(처방전 없이 구매 불가)	12정	14.14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30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0.32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2.50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23.00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옥탄가 95 기준)	1L	0.85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07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3.640
16	여가	담배 (켄트)	1갑	1.620
17	여가	맥주 (벨라루스산)	500ml	1.210
18	임금	최저임금	법정최저 월 임금	168.920
19	학비	국제학교(고등학교 기준) 수업료	연간	24200.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은행간 금리 기준) (2021.7.21)	%	9.250

<자료원 : 벨라루스 중앙은행, MINSK TRANS, EVROOPT 마트, Belarusnefti 등>

## 8. 출장정보

### 가. 환전

<b>통화체계</b>	<p>벨라루스 정부는 2016년 7월 1일부로 디노미네이션을 시행, 기존 화폐의 1/10,000의 가치를 가진 신화폐 유통을 시작했다. 화폐단위는 벨라루스 루블(Rouble: BYN)이며, 지폐와 동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폐 종류: 500/200/100/50/20/10/5루블 8종류</li><li>- 동전 종류: 2루블, 1루블, 50/20/10/5/2/1 코페이카 8종류</li></ul>
-------------	--

### 환전방법

공식적으로 외국환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벨라루스 루블로 환전 후 사용해야 한다. 벨라루스 루블 가치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필요한 만큼 환전하는 것이 좋으며, 벨라루스 내 상점 및 식당에서 외화는 일체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참고해야 한다.

환전 장소는 공항, 호텔 및 은행, 그리고 시내 곳곳에 설치된 환전소와 차량으로 된 이동식 환전소에서 자유로이 환전할 수 있다. 또한 주요 호텔과 은행에 설치된 자동현금지급기(ATM)를 이용해 신용카드(Master, VISA)로 벨라루스 루블을 바로 인출할 수 있다. 환율은 은행 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큰 액수가 아닐 경우 호텔 내 환전소를 이용해도 큰 차이는 없다.

벨라루스는 외화 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통상 10,000달러 이상 외화를 소지하고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기재한 후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시 제출한 세관 신고서 상 외화 보유액보다 출국 시 외화 보유액이 많으면 외환관리법상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2021년 9월 기준, 달러 대비 벨라루스 루블 환율은 2.5030루블이다.

### 신용카드 이용

호텔이나 시내 유명 상점 또는 레스토랑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 영세상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점차 신용카드 결제 가능 추세이니 먼저 카드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나. 교통

#### 교통상황

벨라루스(민스크) 대중교통은 비교적 깨끗하고 구역별로 잘 정리돼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벨라루스의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지하철, 버스, 트롤리 버스, 트램과 택시가 있다. 지하철 요금은 0.8루블이며 버스, 트롤리 버스, 트램 요금은 0.75루블로 동일하다. 익스프레스 버스 요금은 0.9루블이며 버스나 전차가 다니지 않는 곳이나 다소 먼 곳을 운행하는 미니버스의 요금은 구간별로 다르지만 약 1.5~2루블이다.

1회 승차권과 정기승차권이 있으며 승차권 구입은 지하철 매표소나 정류장 근처 가판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교통카드는 1.2~2.88루블 정도 되며, 지하철만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는 1루블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1개월 정액권이 있는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 대중교통 1개 이용권: (일반버스/트롤리버스/트램) 33.75루블, (지하철) 36.00루블, (익스프레스버스+버스) 45.50루블
- 대중교통 2개 이용권: 45.04~51.05루블(이용하는 교통편 선택지 사양에 따라 가격 차이)
- 대중교통 3개 이용권: 53.70~58.48루블(이용하는 교통편 선택지 사양에 따라 가격 차이)
- 대중교통 4개 이용권: 61.76루블

한편 승객들은 지하철에서 비접촉식 은행카드 Visa payWave, MasterCard Contactless, BELKART-Maestro 등을 사용하여 일회성 요금을 지불 할 수 있으며, NFC(Near field communication)를 지원하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2020년 9월 1일부터 지상 대중교통 수단에서도 TIX 모바일 앱과 Pay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스마트폰 요금결제가 가능하다.

## 버스

버스는 1회 탑승요금이 0.75루블이며 노선도를 미리 확인해 놓으면 편리하게 시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운행 시간 5:20~1:00). 버스 노선도는 스마트폰 어플 "Minsk Guide"를 다운받으면 도착 시간과 노선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정류장에도 노선 및 차량 번호가 표시돼 있다.

승차 후 1회 승차권은 내부에 설치된 기계에 투입해 사용일시, 시간, 노선 등이 적힌 코드를 찍어야 하고, 정기승차권(교통 카드)은 카드단말기에 접촉해야 한다. 무임승차를 했을 경우 검표원에게 적발 시 14.5~29루블의 벌금을 내야 한다.

## 택시

민스크에서는 택시 이용 시 콜택시를 이용해야 하며, 길거리에서 택시를 보고 손을 흔들어도 거의 서지 않는다.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도 있으나 요금이 비싸며 일부 호텔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콜택시는 전화로 주문하면 10분 내외로 도착하며 기본요금은 4~5루블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주행요금은 1km당 0.3~0.6루블 수준이며 대부분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택시에 탑승하면 미터기가 있어 목적지에 도착할 시 정확한 요금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이 종종 미터기 사용을 꺼리기도 하므로 전화로 택시를 신청할 때 밀리미터기와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콜택시 외에도 모바일 앱을 이용해 택시를 예약하기도 한다. 택시를 잡기 어려운 곳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등록된 차량과 연결되며 비용, 시간 등을 협의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다. 벨라루스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택시 앱으로 Uber, Yandex, Next App 등이 있다.

한국에서처럼 거리에서 택시를 불러 타면 기사와 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해 흥정을 해야 하며 콜택시 이용 시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요 콜택시 전화번호: 107, 125, 135, 152, 7788) 콜택시를 부르는 요령은 아래와 같다.

- 택시회사에 전화를 걸어,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주소)를 말한다.
- 콜센터 안내원이 도착 예정 차량의 차종, 색깔 및 도착 예정 시간을 말해준다.
- 전화 시 때에 따라 전화 건 사람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요청하기도 한다.
- 러시아어를 못 하거나 전화 걸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호텔 안내 데스크나 식당에 택시 호출을 요청하면 일반적으로 택시를 불러준다.
- 택시를 타면 기사에게 목적지 주소를 알려주면 되고, 택시 요금은 미터기에 나온 금액을 보면 된다.

## 지하철

현재 민스크에는 3개의 노선이 남북의 방향으로 개통돼 운행 중이며 33개의 역이 있고, 오전 5:30부터 새벽 1:00까지 운행하고 있다. 지하철역 내부의 매표소에서 제톤(동전 모양의 붉은 플라스틱 탑승권)을 구입한 후, 개찰구에 투입 후 통과한다. 지하철은 3개 노선으로 1회 이용 요금은 0.8루블이다. 1개월 이상 장기 체류 시 1개월 정액권을 구입할 수 있으며, 1개월 동안 횟수와 관계없이 승차할 수 있다.



## 다. 통신

### 핸드폰

한국 및 일본, 미국 등 국가는 대부분 CDMA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이는 심카드(유심카드)가 없이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GSM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심카드(유심카드)를 모바일기기에 넣어서 사용한다. 심카드(유심카드)를 GSM 모바일기기에 넣으면 작동한다. CDMA를 사용하는 국가이든 GSM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이든 스마트폰에는 모두 심카드(유심카드)를 사용한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한국에서 쓰던 모바일기기 안의 심카드를 제거하고 벨라루스 통신사에서 구입한 새로운 심카드를 넣으면 된다. (벨라루스에는 크게 MTS, A1, Life 통신사가 있다) 단, 거주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휴대폰 심카드를 구입할 수 없다. 하지만 A1에서 임시 유심카드를 구입할 수는 있다.

컨트리락이란 해당 통신사에서 특정 국가에서만 기기가 사용 가능하게 하고, 해외에서 심카드를 바꿔 넣어도 사용되지 못하게 해놓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일부 통신사가 몇몇 기기에 '컨트리락'을 걸어놓는다. 컨트리락은 출국 전 통신사에 컨트리락 해지를 요청하면 3일 이내에 해지된다.

핸드폰 요금은 다양한 요금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충전한 돈만큼 사용하는 요금제도 있다.

### 인터넷(와이파이)

벨라루스 전역에 약 600,000개 이상의 무선 인터넷 WiFi 망을 구축할 정도로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아직 인터넷 카페 등이 활성화돼 있지 않으나, 주요 호텔 내 비즈니스 센터, 시내 주요 우체국 부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이후 민스크에서는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무료 Wi-Fi Minsk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

## 라. 관광명소

### ◦ 독립 광장(Independence Square)

도시명	민스크
주소	Sq. Nezavisimosti
운영시간	별도 운영시간은 없다.
휴무일	휴무일은 없다. 간혹 행사로 출입이 통제될 수도 있다.
명소소개	민스크 시내를 관통하는 독립대로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청사, 벨라루스 국립대학, 시청과 중앙 우체국, 그리고 가톨릭 성당과 민스크 호텔 등이 위치해 있다. 정부 청사 앞에는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후 소련 연방 창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회주의 혁명가 레닌 동상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광장 전체를 개조해 현대식 지하 쇼핑센터로 개장했으며 민스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 ◦ 가톨릭 성당 (시몬과 헬렌 성당)(St. Simon and St. Helen Roman Catholic Church : The Red Church)

도시명	민스크
-----	-----

주소	St. Sovetskaya 15
운영시간	(평일) 07:00~19:00 (주말) 08:00~21:00
휴무일	휴무일은 없다.
명소소개	<p>독립광장 옆에 위치한 가톨릭 성당으로 외벽이 붉은 벽돌로 지어진 특성으로 인해 붉은 성당이라고도 불린다. 공식 명칭은 시몬과 헬렌의 성당으로 1908년에 착공해 1910년에 완공됐는데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은 대표적인 유적이다.</p> <p>성당이 지어진 사연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몬과 헬렌은 당시 민스크의 덕망 높고 부유한 귀족으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전염병으로 인해 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아픔을 경험해야 했다. 이후 자신들의 전 재산을 헌납해 성당을 지어 하느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다.</p> <p>그래서 성당 건물을 보면 중심에 큰 탑기둥이 있는데 이는 부모들인 시몬과 헬렌을 상징하고 이와 마주하고 있는 작은 두 개가 탑기둥은 젊어서 세상을 떠난 이들의 두 자녀들을 상징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넋을 기리고자 했다고 한다.</p> <p>구소련 시절에는 영화관과 카페로 전용됐다가 1990년대 이후 가톨릭에 귀속됐다.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로 붉은 색의 아름다움과 헌납자의 마음이 잘 표현된 유적이다.</p>

#### ○ 10월 광장(October Square)

도시명	민스크
주소	Sq. October
운영시간	별도 운영시간은 없다.
휴무일	휴무일은 없다. 간혹 행사로 출입이 통제될 수도 있다.
명소소개	<p>민스크 시내 중심에 위치한 광장으로 주위에 국립회관, 문화회관, 중앙공원, 그리고 구 대통령 집무실 등이 위치해 있다. 특히 국립회관은 구소련 연방시절 공산당 전당대회 목적으로 건립이 추진됐으나 현재는 주로 문화 공연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p> <p>건물 외곽 모양은 모스크바의 레닌의 묘를 본떠 건립됐고 10월 광장에 위치한 0Km라는 이정표가 있는데 이는 민스크가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중심임을 상징하고 있다. 가까운 거리에 국영 백화점인 굼이 위치해 있어 간단한 쇼핑을 즐길 수 있고, 또한 주위에 패스트푸드점들이 위치해 있어 간편한 식사를 할 수 있다.</p>

#### ○ 성령 성당(Holy Spirit Cathedral)

도시명	민스크
주소	St, Kirilla and Mefodiya 3
운영시간	(평일) 07:00~19:00 (주말) 08:00~21:00
휴무일	휴무일은 없다.

<b>명소소개</b>	<p>민스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 중의 하나로 스비슬로치 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성령 성당은 1642년 지어진 바로크 양식의 러시아 정교회 사원으로 전쟁의 폐허가 빚겨간 유적 중의 하나이다.</p> <p>내부에는 러시아 정교회를 상징하는 많은 성상과 성화가 있어 이를 감상할 수 있고 일요일 오전에 방문하면 미사가 진행되는 것을 참관할 수 있다. 내부 참관 시 절대 정숙과 모자는 반드시 벗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p>
-------------	--

○ 삼위일체 마을(The Trinity Suburb)

<b>도시명</b>	민스크
<b>주소</b>	Troitskoye Predmestie
<b>운영시간</b>	별도 운영시간은 없다.
<b>휴무일</b>	휴무일은 없다. 간혹 행사로 출입이 통제될 수도 있다.
<b>명소소개</b>	<p>민스크에서 올드타운(Old town)으로 불리는 지역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되지 않은 지역으로 18~19세기 민스크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p> <p>민스크를 가로 지르는 스비슬로치 강변 위치해 있고 붉은 계통의 낮은 건물은 중세 유럽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대부분의 건물은 레스토랑으로 전용돼 사용되고 있고 특히 여름에는 강변 쪽으로 노천 카페의 맥주축제와 공연들이 관광객과 민스크 시민에게 많은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p>

○ 눈물의 섬(Island of Tears)

<b>도시명</b>	민스크
<b>주소</b>	Troitskoye Predmestie
<b>운영시간</b>	별도 운영 시간은 없다.
<b>휴무일</b>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작은 섬과 같은 공간이므로 별도의 휴무일은 없다.
<b>명소소개</b>	<p>스비슬로치 강변에 위치한 섬으로 아프가니스탄 참전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는 기념비이다.</p> <p>구소련 시절 아프가니스탄 참전은 패배한 전쟁으로 취급당해 전사자들과 참전 용사들에 대한 아무런 보상과 대우가 이뤄지지 못했다. 구소련 해체 후 전사자들의 어머니들과 미망인들이 중심이 돼 기념비 건립이 추진됐는데 기념비의 형상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여인들의 슬픔이 가슴 저리게 표현돼 있다. 기념비 중앙에는 러시아 정교회 사원을 본뜬 조형물이 있고 내부에 돈을 던져 그들의 넋을 추모할 수 있도록 현금 향아리가 있다. 주변 호수 벨라루스 호텔 앞에는 작가 푸쉬킨의 동상이 있다.</p>

○ 승리 광장(Victory Square)

<b>도시명</b>	민스크
<b>주소</b>	Sq. Peremohi
<b>운영시간</b>	별도 운영시간은 없다.
<b>휴무일</b>	휴무일은 없다. 간혹 행사로 출입이 통제될 수도 있다.

<b>명소소개</b>	<p>벨라루스는 2차 대전 시 전체 국민의 30%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많은 기념비가 산재해 있는데 그중에 승리의 광장은 가장 중요한 기념비에 속한다.</p> <p>독립대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전승 기념비와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1961년 점화된 후 지금까지 타고 있다. 주말이면 구소련식 전통에 따라 신혼부부들이 예식을 마치고 기념비에 헌화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 경축일 때는 절도 있는 군인들의 근무 교대식이 민스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p> <p>또한 주위에 스비슬로치 강이 흐르며 아름다운 고리키 공원과 안카 쿠팔라 공원이 있어 잠시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p>
-------------	---

〈자료원 : 벨라루스 관광청〉

## 마. 식당

### - 현지식당

#### ○ 그랜드 카페(Grand Cafe)

<b>도시명</b>	민스크
<b>전화번호</b>	+375-44-703-1111
<b>주소</b>	St. Lenin 2
<b>가격</b>	1인당 40~50달러 정도를 지불하면, 식사와 간단한 음료를 즐기기 충분하다.
<b>영업시간</b>	매일 영업, 12:00~24:00
<b>휴무일</b>	휴무일 없음
<b>소개</b>	메뉴: 이태리, 프랑스식
<b>비고</b>	분위기가 고급스러워 귀빈을 접대하기에 적합하다.

#### ○ 바실키(Vasilki)

<b>도시명</b>	민스크
<b>전화번호</b>	+375-29-706-7034
<b>주소</b>	Pobediteley avenue 9 (Shopping mall "Galleria Minsk") 등 시내 몇몇 곳에 프랜차이즈 식으로 존재
<b>가격</b>	1인당 20~30달러 정도를 지불하면, 식사와 간단한 음료를 즐기기 충분하다.
<b>영업시간</b>	월~일 매일 영업, 10:00~23:00
<b>휴무일</b>	휴무일 없음
<b>소개</b>	메뉴: 벨라루스 현지식(전통음식)
<b>비고</b>	벨라루스 전통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며, 프랜차이즈 식당이기 때문에 민스크 곳곳에 식당이 있다.

#### ○ 양쯔반점(Yangze)

도시명	민스크
전화번호	+375-17-328-5332
주소	Svobody square 8
가격	1인당 20~30달러 정도를 지불하면, 식사와 간단한 음료를 즐기기에 충분하다.
영업시간	매일 영업, 11:00~23:00
휴무일	휴무일 없음
소개	메뉴: 중국식
비고	시내에 위치해 있는 중국식당이며, 한국인 입맛에 맞는 중국식이다. 메뉴에 비빔밥도 있다.

<자료원 : Relax.by, 각 식당 홈페이지>

- 한국식당  
없음.

##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o 더블트리 힐튼(DoubleTree Hilton)

도시명	민스크
주소	Pobediteley Ave.9, Minsk
전화번호	+375-17-309-8000
홈페이지	<a href="https://www.hilton.com/en/hotels/msqtdi-doubletree-minsk/">https://www.hilton.com/en/hotels/msqtdi-doubletree-minsk/</a>
숙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Tax 및 조식 포함</li> <li>- King guest Room(161달러)</li> <li>- Twin Guest Room(161~186달러)</li> <li>- King Suite (308달러)</li> </ul>
소개	벨라루스 민스크에 있는 5성급 호텔이다. 시내에 위치해 있고, 바로 옆에 쇼핑몰 Galleria가 있어, 체류하기에 가장 편한 호텔이다. 한국에서 벨라루스를 방문하는 출장자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는 호텔이다.
비고	위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이 단점이다.

### o 메리어트(Marriott)

도시명	민스크
주소	Pobediteley Ave. 20
전화번호	+375-17-279-3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marriott.com/hotels/travel/mhpmc-minsk-marriott-hotel/">http://www.marriott.com/hotels/travel/mhpmc-minsk-marriott-hotel/</a>
숙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x 및 조식 포함</li> <li>- Classic Room(154달러)</li> <li>- Classic Riverside View(169달러)</li> <li>- Hospitality Suite(329달러)</li> <li>- Premium Suite(379달러)</li> </ul>
소개	벨라루스 민스크에 있는 5성급 호텔이다. 시내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어서 DoubleTree Hilton 보다는 선호하지 않는 호텔이다. 그러나, VIP를 모실 경우에는 가장 적합한 벨라루스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이다.
비고	벨라루스 대통령궁 인근에 위치해 있고, 호텔에서 바라보는 강변 풍경이 일품이다.

### ○ 빅토리아(Victoria)

도시명	민스크
주소	Pobediteley ave. 59
전화번호	+375-17-239-7777
홈페이지	<a href="http://victoria1.hotel-victoria.by/en/">http://victoria1.hotel-victoria.by/en/</a>
숙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x 및 조식 포함</li> <li>- Single room(110달러)</li> <li>- Double/Twin room(133달러)</li> <li>- Luxe Room(164달러)</li> </ul>
소개	벨라루스 민스크에 있는 4성급 호텔이다. 벨라루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영 호텔이다. 5성급 호텔에 비해서는 약간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나,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출장자들이 비교적 많이 이용하는 호텔 중 하나이다.

<자료원 : 상기 각 호텔 홈페이지>

- 게스트하우스  
없음.

## 사. 치안

### 치안상황

벨라루스 치안 상황은 현 대통령 집권 이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경범죄까지 현저히 감소해 양호한 편이다. 다만,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소매치기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극우 민족주의 성향(스킨헤드 등) 세력에 대한 강한 통제정책으로 유색인에 관한 폭력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저녁 또는 야간에 혼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통행할 경우 신변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9년 10월 16일 저녁 민스크 시내(Yakub Kolas 거리 부근)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유학생들을 현지인이 공기총으로 위협하며 금품을 갈취하려다 벨라루스 경찰에 연행된 사건이 있었다.

귀중품을 차량 내부 보이는 곳에 방치한 채 주차를 하는 경우, 차 유리를 부수고 물품들을 훔쳐 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가 빈번하므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차량 운전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해야 할 지역으로는 지하철, 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잡한 곳에서 소매치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주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출할 경우 주의가 필요한 지역으로는 세레브리안카(Серебрянка), 드라주냐(Дражня), 스테판카(Степянка), 수하레보(Сухарево), 말리노프카(Малиновка) 등이 있다. 외출 시 크게 문제가 없는 지역이지만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곳이며, 야간에 홀로 이곳으로 외출한다거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으로 통행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응급상황 대처요령**

교통사고, 여권/지갑 분실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주 벨라루스 대한민국대사관: +375-17-215-0170~4, +375-29-369-1320(당직전화, 사건·사고 담당)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4
-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by-ko/index.do>
- 주소: 220002, Storozhevskaya street 10, Minsk, Belarus

## 9. 생활정보

### 가. 주택

####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 1) 가구, 비품 및 장식품

일반주택을 임대할 경우 Furnished와 Unfurnished가 있으며, Furnished인 경우 기본 가구가 대부분 비치돼 있다. Furnished와 Unfurnished의 임차료 차이가 크며, 집주인의 경우 Unfurnished 상태로 임대를 선호하는 추세인바, 기본 가구는 가져오는 것이 유리하다. 벨라루스산 가구는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질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편이며, 주문 제작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납품까지는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 수입 외국산 가구는 국산 가구보다 2배 이상 비싼 편이다.

현지 가구의 질이 떨어지고, 외국산 가구는 고가임을 감안할 때, 한국 가구를 가져오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운송비 및 장기간의 운송 기간 그리고 대부분의 주택이 가구를 비치한 점을 감안할 때 경제적으로 크게 유리하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가구가 없는 주택의 경우에도 세탁기, 냉장고 등 기본 전자제품은 구비돼 있다.

##### 2) 주택 사정

아파트와 일반주택 모두 가능하며, 최근 외국인인 상대로 아파트 리모델링이 유행이나 현관,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동 사용구역에 대해서는 유지 및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시내에 위치한 단독주택 임차료는 아파트 대비 아주 높은 편이며, 도시 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비교적 가격이 합리적인 편이나 교통, 치안, 물품 구입 등에 문제가 있다. 최근 러시아 및 서구기업의 진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부호들의 부동산 투자 등에 따라 주택 임차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3) 아파트 렌트와 방 렌트의 차이점

아파트(квартира) 렌트란, 아파트를 통째로 빌리는 것으로, 혼자서 거주하게 되는 형태이며, 방(комната)렌트란 아파트 내에 방 한 칸만을 빌려 쓰는 것이다. 방 렌트는 보통 집주인과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여러 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는 각 방에 여러 학생이 거주하게 되는 형태도 있다.

아파트의 크기, 방의 개수, 가전제품의 유무, 집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특히 위치와 방 개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시즌에 따라 가격의 차이도 많이 나뉘며 장기임대, 단기임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보통 아파트를 구하는 성수기 시즌은 8~10월이며, 그 이유는 학교가 시작하는 1학기가 9월이고 지방에 거주하는 벨라루스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많이 구하는 시즌이기 때문이다. 비수기 시즌은 보통 2~4월이며 이미 2학기가 시작돼서 한 학년이 끝나가는 시즌이 다가오기에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 4) 렌트 방법과 수수료

① 개인 에이전트 이용: 아파트 렌트를 개인이 대신 알아봐 주고 구해주는 에이전트가 있다. 보통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수료는 에이전트마다 다르며 보통 거주하게 될 아파트의 한 달 렌트 비용을 에이전트 수수료로 주는 경우가 많다. 집을 알아볼 때 개인 에이전트가 함께 가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 부동산 이용: 부동산을 통해 렌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마다 수수료 시스템이 다르다. 일정 금액을 받고 여러 가격대의 아파트를 알아봐 주는 부동산이 있고, 본인이 거주하게 될 아파트의 한 달 렌트비용의 절반을 수수료로 주어야 하는 시스템을 가진 부동산도 있다. 부동산



산에서 보통 집 주소와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대부분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해 약속시간을 잡아 준다).

③ 신문 이용: Из рук в руки는 중고거래 물품에 대한 정보가 있는 신문이다. 신문에 집주인의 연락처가 있으며 스스로 연락해 이야기 하고 약속시간을 잡아서 아파트를 보면 된다.

④ 인터넷 이용: 인터넷 사이트 중 아파트 렌트에 관련된 사이트가 많다. 방법은 신문을 이용해 찾는 방법과 같다. 주요 사이트로는 <http://molnar.by/>, <http://www.t-s.by/>, <https://www.hata.by>, <https://www.kvartirant.by>, <https://realt.by>, <https://neagent.by> 등이 있다.

## 5) 주택 임차 시 주의할 점

아파트나 방으로 이사할 경우 거주 비자도 재신청해야 한다. 방을 렌트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홈스테이와는 많이 다르다. 집주인이 거의 터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인이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집주인이 Расчётно-справочный центр(동사무소 개념)에서 세금을 따로 내야 한다. 민스크 내의 각 지역(район 한국의 '구'에 해당)에 따라 세금이 조금씩 차이가 나며 보통 2~4만 원이다. 이 부분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아파트 비용을 더 높게 받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 렌트의 경우 사기를 당할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으로 이용해 구할 경우 그 빈도가 부동산 이용할 때보다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과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절대 집 렌트 비용을 주지 말고 집주인의 여권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이용할 경우 방의 개수, 위치, 희망 렌트 비용 등 본인에게 필요한 조건을 최대한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 렌트 시 공과금(물, 전기 등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도 집주인과 이야기를 꼭 해야 한다. 입주 전에 주인에게 요구한 사항이 완료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요청 사항이 완전히 완결된 후에 입주하는 것이 좋다. 계약 종료 시 간혹 주인들이 가구 및 설비 사용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Security, 주차장 유무, 하절기 1개월간 운수 공급 중단 시 사용할 순간 운수기 설치 여부 등 확인 필수적이다. 아직 원상회복 등에 대해서 까다로운 편은 아니나 이 문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주택 임차 시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며, 통상 중개 수수료로 임차료 1개월분의 50%를 중개업소에 지불한다. 오피스 임대 시에는 민스크에서 오피스 건물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아겐스트바 니드비침마스지)를 통해 찾을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통상 오피스 1개월 임대비용의 100%를 임차계약서 체결 후 임차인이 지급한다. 민스크 시내 오피스 임대료는 1㎡당 20유로 수준이다. 임차 계약서는 통상 1년 단위로 계약되며 계약서 체결 전, 임차료·오피스 관리비 지불 조건 등에 대해 임대인과 상세한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 전화

### 1) 국내 전화 사용법

- 일반전화 → 일반전화: (000-0000 전화번호: 7자리)
- 일반전화 → 휴대폰: 8-029-000-0000
- 휴대폰 → 휴대폰: +375-29-000-0000
- 휴대폰 → 시내전화: +375-17-000-0000 또는 #000-0000

### 2) 국제전화 사용법

- 8 + 10 + 국가번호 + 지역번호 + 전화번호  
- 예: 서울 000-0000 전화 시: 8-10-82-2-000-0000

- 중앙 우체국에서 국제전화 이용이 가능하며, 또는 공중전화카드 구입 시 시내 공중전화로도 국제전화 이용이 가능하다. 공중전화 카드는 시내버스 정류소 매표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 전압/플러그

한국과 동일하게 220V를 쓰고 있고(전압은 50Hz), 플러그도 동일하여 한국제품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 식수

일반 가정집에서는 수도물을 세척용으로만 쓰지 식수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 정수 필터를 설치하여 마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마트에서 생수를 사서 마시고 있다.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물에 석회질 성분이 있기 때문에 식수는 생수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편이다.

##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 구매방법

#### 1) 자동차 구입

도로 및 기후 조건이 열악해 3년 이상 사용할 경우 심하게 노화되므로 가급적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 차의 경우 유럽산 자동차도 구입에 2~3개월이 소요되며, 한국산 자동차를 현지 딜러로부터 구입할 경우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

중고차의 경우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고 선택의 폭이 넓다는 이점이 있으나, 차 사고 여부, 도난차량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 현지의 도로 사정과 기후 조건의 열악성으로 자동차 노화가 한국보다 빠른 실정이다.

#### 2) 중고차 매입 절차

이전 차주와 함께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대리점(Malinovka, Zhdanovichi 중고차 시장 근처에 상당수의 매매대리점이 있음)에서 솟스프라브카(СЧЁТ СПРАВКА)를 작성해야 한다. 솟스프라브카(СЧЁТ СПРАВКА)에는 자동차 구매자의 성명 및 차량구매 일자, 가격이 명시되어 있으며, A4용지 1/2 규격쯤 되는 컬러 종이에 명시되어 있다. 이 서류는 차량 등록증 접수 전까지 차량 소유주가 매입자로 이전이 됐다. 증명서이다. 차량구매대금은 솟스프라브카(СЧЁТ СПРАВКА) 작성 전 또는 작성 중에 전달되어야 한다.

① 의무보험 가입: 벨라루스 도로교통법에 의거 벨라루스에 등록된 모든 차종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솟스프라브카(СЧЁТ СПРАВКА) 작성 후, 반드시 소유주 명의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교통경찰서(ГАИ) 방문 후 차량 등록증 및 검사증, 번호판 교부를 위한 절차 СЧЁТ СПРАВКА에 근거해 새로운 번호판을 받아야 한다(СЧЁТ СПРАВКА 작성 당시에는 TRANSIT 번호판 부여). 일단 임시번호판(TRANSIT 번호판)을 직접 떼 후, 임시번호판을 반납해야 한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СЧЁТ СПРАВКА, 이전 소유자 명의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검사증(Технический Осмотр)이며 등록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다. 본 서류와 함께 A4용지에 인쇄된 종이에 자동차 일련번호를 경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 있는 차량 고유 일련번호와 판매 차량에 명기된 번호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자동차 보험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을 담당자가 일단 회수해 간다. 이때 차량 등록증이나 번호판 등 차량 소유에 관한 서류는 한시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대개 오전에 본 절차를 끝마치면 오후에 새로이 교부되는 번호판 및 등록증, Технический Осмотр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오후에 하게 되면 다음 날 오전에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운전 시 유의 사항은 교통경찰의 불시검문 시 등록증 미소유 및 번호판 미부착으로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점이다.

③ Технический Осмотр(자동차 검사증): 10년 미만의 차종은 2년 주기, 10년 이상의 차종은 1년 주기로 본 자동차 성능 검사를 거

쳐야 한다. 까다로운 절차이며 운이 없으면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되도록이면 지인을 통해 찾아가는 것이 좋다.

## 차량가격

차량 가격은 신차 기준으로 보면, 중·소형차가 보통 1.5만~2만 달러이다. 물론,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현대/기아와 같은 우리나라 브랜드 신차가 액센트/아반테/리오 등 기종 중심으로 볼 때, 2만 달러 전후이다. 동 차량들은 한국에서 제조되어 수입된 것이 아니라, 러시아 또는 슬로바키아에 있는 현지 공장에서 제작된 것이다. 중고차량 가격은 연식, 모델, 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므로,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다.

## 운전면허 취득

벨라루스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운전면허 시험을 보아야 한다.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이 러시아어로 되어 있으므로, 상당한 수준의 러시아어 실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벨라루스의 운전면허 시험은 학과(필기)시험, 장내 기능시험, 도로 주행시험으로 이루어지며 운전면허 시험 전 의무적으로 90일간 운전면허 교습 기관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단, 기존에 면허증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90일간의 교습 기간이 면제된다.

벨라루스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갖추어 벨라루스 내무부 교통 경찰국에 신청해야 한다.

- 구비서류: 신청서(교통 경찰국 방문 작성) 거주 등록이 표기된 여권(벨라루스 국적 취득자) 또는 영주권, 한국면허증 및 면허증 러시아어 번역공증, 건강증명서(사전에 교통 경찰국에 문의하여 해당 지정 병원에서 검사 실시), 면허 시험 응시료 및 면허증 발급 수수료(30달러 상당)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벨라루스 현지에서 번역공증 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단, 벨라루스 영주권자 및 국적 취득자의 경우 장기체류자로 구분되어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이후 3개월 이내 벨라루스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서 사용해야 하며, 이때는 벨라루스 국민의 운전면허 취득 방법과 동일하게 운전면허 시험 후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 다. 은행 계좌 개설

### 주요은행

벨라루스에 있는 모든 은행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웹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s://select.by/banks/>, <https://www.nbrb.by/system/banks/list>

일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은행은 벨라루스 토종 은행인 БелАгроПромБанк(벨아그로프롬뱅크), БеларусБанк(벨라루스뱅크), БелИнвестБанк(벨인베스트뱅크) 등이 있다.

토종 은행 외에도 외국계 은행이 다수 있는데, 러시아계 은행으로는 Банк БелВЭБ(벨베브뱅크), Альфа-Банк(알파뱅크), БПС-Сбербанк(스베르뱅크) 등이 있고, 스위스계 은행인 БСБ Банк(БелСвиссБанк, 베에스베뱅크) 등이 있다.

### 계좌 개설방법

단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은행 계좌 개설이 거의 불가능하고, 거주 주소지가 명확하고 현지에 체류 목적이 분명한(유학, 취업 등) 경우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여권, 현지 신분증, 거주등록증을 준비해서, 각 은행에 비치된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달러 거래 계좌의 경우, 벨라루스는 외화 부족국가로 외환 관리에 상당히 까다로우므로 서류 절차가 더 복잡할 수 있다.

## 라. 교육

### - 주요 국제학교

#### ○ QSI Minsk (Quality School International)

도시명	민스크
커리큘럼	영어(읽기, 문법, 작문 등), 수학, 문화, 과학, 컴퓨터, 음악, 미술과목 등
학비	연간 24,200달러 가량
홈페이지	<a href="https://www.qsi.org/minsk/">https://www.qsi.org/minsk/</a>
비고	사립 비영리기관으로 1993년 개교하였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자료원 : QSI 홈페이지>

### - 현지학교

#### ○ 벨라루스국립대 (Belarusian State University)

도시명	민스크
커리큘럼	국립대학이며, 다양한 전공과목이 있다.
학비	연간 3,000~4,500달러 (전공학과에 따라 상이) (동 학비는 외국인 학생기준이며, 내국인의 경우 50% 정도 학비가 감면됨)
홈페이지	<a href="https://bsu.by/en/">https://bsu.by/en/</a>
비고	벨라루스국립대가 가장 대표적인 대학교이며, 이외에도 우리 유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로는 민스크언어대(Minsk State Linguistic University), 벨라루스문화예술대(The Belarusian State University Of Culture And Arts), 벨라루스경제대(Belarus State Economic University) 등이 있다.

<자료원 : 벨라루스 국립대학교 홈페이지>

## 마. 병원

#### ○ Medical Center LODE (로데)

도시명	민스크
주소	Minsk, Nezavisimosti avenue, 58
전화번호	+375-17-293-9800
진료과목	내과, 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 종합병원 내 있는 모든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비고	영문 홈페이지는 <a href="http://eng.lode.by/">http://eng.lode.by/</a> 이며, 전국에 9개의 병원을 운영중인 프랜차이즈 형태의 민간 클리닉이다.
----	---

○ Medical Center Nordin (노르딘)

도시명	민스크
주소	Minsk, Surganova str. 47B
전화번호	+375-17-296-6272
진료과목	내과, 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 종합병원 내 있는 모든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비고	민스크 내 운영중인 민간 클리닉이다. ( <a href="https://nordin.by">https://nordin.by</a> )

<자료원 : Medical Center LODE, Medical Center Nordin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ZAMOK (자목)

도시명	민스크
주소	65 Pobediteley Ave.
홈페이지	<a href="http://www.tczamok.by">http://www.tczamok.by</a>
비고	벨라루스 민스크에 위치한 가장 큰 쇼핑센터 중 하나이다. 벨라루스는 백화점과 쇼핑센터가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 쇼핑센터/백화점/몰이 거의 같은 용어로 쓰이고 있다. 큰 쇼핑몰 안에 Closed Shop이 입주해 있는 것이다. ZAMOK에는 식료품점뿐 아니라, 의류, 패션, 가전, 생활용품 등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 Galleria (갤러리아)

도시명	민스크
주소	9 Pobediteley Ave.
홈페이지	<a href="http://galleria-minsk.by">http://galleria-minsk.by</a>
비고	벨라루스 민스크에 위치한 가장 큰 쇼핑센터 중 하나이다. 시내 한가운데 있는 쇼핑몰이라서 젊은 학생들로 늘 붐비는 곳이다. 시내 관광을 하는 경우 6층 푸드코트에서 식사를 하고 쇼핑까지 할 수 있는 최적지이다.

○ Dana Mall (다나몰)

도시명	민스크
주소	11 Petra Mstsislavtza Str.

홈페이지	<a href="https://dana-mall.com">https://dana-mall.com</a>
비고	벨라루스 민스크에 대표적인 쇼핑몰은 ZAMOK(자목), Galleria(갤러리아), Dana Mall(다나몰)이다. 최근에는 한국화장품 슝, 미니소 등이 입점해서 현지인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 Green City (그린시티)

도시명	민스크
주소	156 Pritytskogo Str.
홈페이지	<a href="http://greencityminsk.by">http://greencityminsk.by</a>
비고	벨라루스 민스크 서쪽에 있는 대형 쇼핑몰로 호텔, 비즈니스센터, 쇼핑센터, 스포츠센터가 모여있다.

○ GUM (굼) 백화점

도시명	민스크
주소	Nezavisimosti avenue, 21
홈페이지	<a href="https://gum.by">https://gum.by</a>
비고	민스크 중심에 위치한 벨라루스 최대 국영백화점. 1951년 11월 5일에 개장하였으며, 벨라루스의 랜드마크이다.

○ TSUM (쯘) 백화점

도시명	민스크
주소	Nezavisimosti avenue, 54
홈페이지	<a href="https://tsum.by">https://tsum.by</a>
비고	1964년 11월 5일에 개장한 민스크 중심가의 백화점이다.

<자료원 : 각 쇼핑센터/몰/백화점 홈페이지>

- 식품점

○ EVROOPT (에브로옵트)

도시명	민스크
주소	Pobediteley Ave. 9 (SM &laquo;Gallireia Minsk&raquo;)
취급 식료품	식료품 전반
비고	벨라루스 최대의 중소형 체인마켓으로 2020년말 기준 전국에 점포수가 900개를 넘어섰다. 영문 홈페이지는 없고, 현지어 홈페이지는 <a href="https://evroopt.by">https://evroopt.by</a> 이다. 온라인 대형몰 "E-delivery"( <a href="https://e-dostavka.by">https://e-dostavka.by</a> )를 운영중에 있다.

◦ KORONA (코로나)

도시명	민스크
주소	65 Pobediteley Ave.
취급 식료품	식료품 전반
비고	영문 홈페이지는 없고, 현지어 홈페이지는 www.korona.by이다. 벨라루스 전역에 약 34개 매장을 가지고 있다.

◦ Green City (그린시티)

도시명	민스크
주소	Pritytskogo Str. 156
취급 식료품	식료품 전반
비고	KORONA와 함께 대표적인 하이퍼마켓이다. 거의 모든 종류의 식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라면이 판매되고 있어 출장자들이 유용하게 쇼핑할 수 있다. 영문 홈페이지는 없고, 현지어 홈페이지는 www.green-market.by이다.

<자료원 : 각 식품점 홈페이지>

- 기타 편의시설

◦ MIR FITNESS (미르 피트니스)

도시명	민스크
주소	Pobediteley ave. 20, bldg. 1
홈페이지	<a href="https://en.mf.by">https://en.mf.by</a>
소개	벨라루스에는 피트니스 클럽이 매우 많지만, 수도인 민스크에서 가장 유명한 피트니스 클럽은 MIR FITNESS이다. 할인가격 등이 적용됨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1년 회원권이 500달러 미만이다. 웨이트 트레이닝뿐 아니라, 실내 수영도 즐길 수 있다.
비고	자세한 내용은 영문 홈페이지 참고 요망

◦ GYM24

도시명	민스크
주소	Pobediteley ave. 7A, 3 floor
홈페이지	<a href="https://en.mf.by">https://en.mf.by</a>
소개	할인가격 등이 적용됨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1년 회원권이 220달러 미만이다.
비고	자세한 내용은 영문 홈페이지 참고 요망

<자료원 : 각 피트니스 홈페이지>

##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년연휴	2022-01-01	벨라루스 국민들에게 있어 가장 큰 명절은 1월1일 새해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로, 우리나라 설날과 같음. 1월 1~2일 이틀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음.
신년연휴	2022-01-02	벨라루스 국민들에게 있어 가장 큰 명절은 1월1일 새해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로, 우리나라 설날과 같음. 1월 1~2일 이틀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음.
크리스마스(정교회)	2022-01-07	동방 정교회에서 쓰는 율리우스력에서는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예수 탄생이라는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연말 연시 축제 분위기의 개념임.
여성의 날 대체공휴일	2022-03-07	여성의 날 연휴를 위해 벨라루스 정부가 3.7일 대체공휴일로 지정 (각료회의 법령 572조). 그 대신 3.12일 토요일은 정상근무임.
여성의 날	2022-03-08	세계 여성의 인권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정한 날임.
노동자의 날	2022-05-01	세계 노동자의 날.
노동자의 날	2022-05-02	노동자의 날 5.1일이 일요일일 관계로 5.2일 대체공휴일로 지정 (각료회의 법령 572조). 그 대신 5.14일 토요일은 정상근무임.
라도니짜	2022-05-03	우리나라의 한식과 같은 명절임. 고대 슬라브인들의 죽은 자들을 추모하는 날임
전승기념일	2022-05-09	제2차 세계대전 전승을 기념하는 날.
독립기념일	2022-07-03	7월 3일은 1944년 7월 3일, 소련군이 나치 독일 점령하의 민스크를 해방시킨 데에서 유래한 날
10월 혁명 기념일	2022-11-07	1917년 볼셰비키 당이 10월 혁명을 일으킨 것을 기념하는 날. (실제 10월 25일이 혁명일이었으며, 동방정교회 율리우스력으로 11월 7일에 기림)
크리스마스(카톨릭)	2022-12-25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레고리력 크리스마스날로 카톨릭 신자들의 경우 가족들과 선물을 주고 받고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냄.

〈자료원 : 벨라루스 정부〉



## 10. KOTRA 무역관 안내

### ○ 민스크 무역관

####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우편물 수령자: Commercial Section of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샘플, 자료 등 송부 시 수취인 명에 꼭 상기 내용을 기재해야 함
  - 아울러, 송장에 "No commercial value", "The price is indicated only for customs clearance", "This sample is not for sale." 등을 기재해야 세관 통관 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KOTRA Minsk 등으로 기재하면 세관에 잡히는 경우가 많음
  - 무역관은 주벨라루스 한국 대사관 상무부로 정식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량의 경우 큰 무리없이 샘플 등을 수령할 수 있음
- 주소: Office 509, 70 Myasnikova street, Minsk, 220030, Republic of Belarus
- 전화: +375-17-200-0168~9
  - 인터넷전화 070-7001-0610~0611도 있어, 한국에서 국제전화요금 부담 없이 통화 가능
- 팩스: +375-17-200-0156
- 이메일: kotra@kotraminsk.by

####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 시
  -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거리는 약 42km이며, 차량으로 이동 시 40~50분가량 소요된다.
  - 공항에서 민스크 시내 및 무역관으로 오는 방법은 공항버스와 택시가 있으나, 택시 이용을 추천한다.
  - 공항버스 이용 시, 티켓 구매 등을 하기 위해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나, 현지인이 영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드물다.
  - 택시를 이용할 경우, 벨라루스 현지화로 40~50루블(약 16~20달러)이다.
- 무역관 입주 건물 도착 후
  - 로비 Security Desk에서 방문처(KOTRA)를 밝히면 안내원이 무역관에 연락하여 손님이 방문했음을 알려준다.
  - 무역관에서 직원이 1층 로비로 내려가서 손님을 맞이하고 무역관 사무실로 안내한다.
  - 무역관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